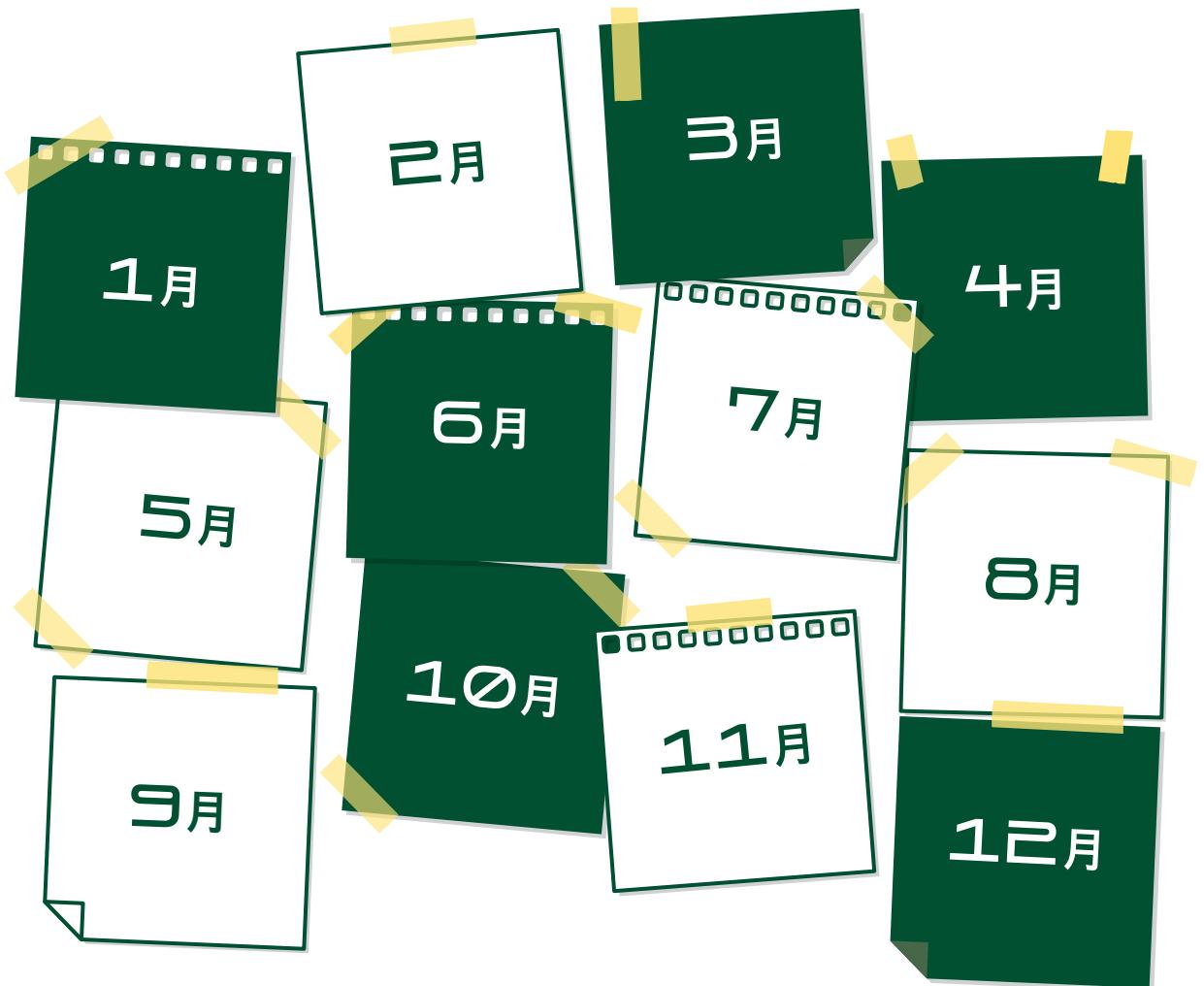


서울시 마을기업 한해살이 공유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마을기업



서울시 마을기업 한해살이 공유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마을기업



목차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 소개

06

마을기업이란?	08
서울시 마을기업 주요 연혁	10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연혁	12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도	14
마을기업 유형 구분	16
마을기업 유형별 세부 설명	17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체계	18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사업 개요	19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개요	21
2021 지정사업 마을기업 리스트	24
2021 지원사업 마을기업 리스트	25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사업

26

2021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28
기획인터뷰_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로(양천구)	29
2021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소개	37
2021 서울시 신규마을기업	46
기획인터뷰_문화플랫폼시민나루 협동조합(동대문구)	47
2021 서울시 신규마을기업 소개	55
2021 서울시 재지정마을기업	62
기획인터뷰_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광진구)	63
2021 서울시 재지정마을기업 소개	70
2021 서울시 고도화마을기업	74
기획인터뷰_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강동구)	75
2021 서울시 고도화마을기업 소개	83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86

2021 서울시 청년로컬액션 창업지원사업	88
단체인터뷰_수상한 협동조합(금천구)x스튜디오490(강북구)	89
2021 서울시 청년로컬액션 지원사업 참여팀 소개	101
2021 서울시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104
기획인터뷰_아리알찬 협동조합(동작구)	105
2021 서울시 사업력 강화 마을기업 소개	112
2021 서울시 지역의제 기획 지원사업	116
기획인터뷰_도시마을 협동조합(강서구)	117
기획인터뷰_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마포구)	124
2021 서울시 지역의제 기반 기획사업 마을기업 소개	132

부록

136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리스트	138
서울시 자치구별 마을기업 담당부서	13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시는 길	14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안내	141
2022 서울시 마을기업 시행지침	142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소개

- [마을기업이란](#)
- [서울시 마을기업 주요 연혁](#)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연혁](#)
-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도](#)
- [마을기업 유형구분](#)
- [마을기업 유형별 세부 설명](#)
-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체계](#)
- [2021 마을기업 지정사업 개요](#)
- [2021 마을기업 지원사업 개요](#)
- [2021 지정사업 마을기업 리스트](#)
- [2021 지원사업 마을기업 리스트](#)

마을기업이란?

정의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이후 2010년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확정하고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10.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된 사업입니다.

용어의 정리

구 분	정 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4대 원칙



공동체성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함



공동성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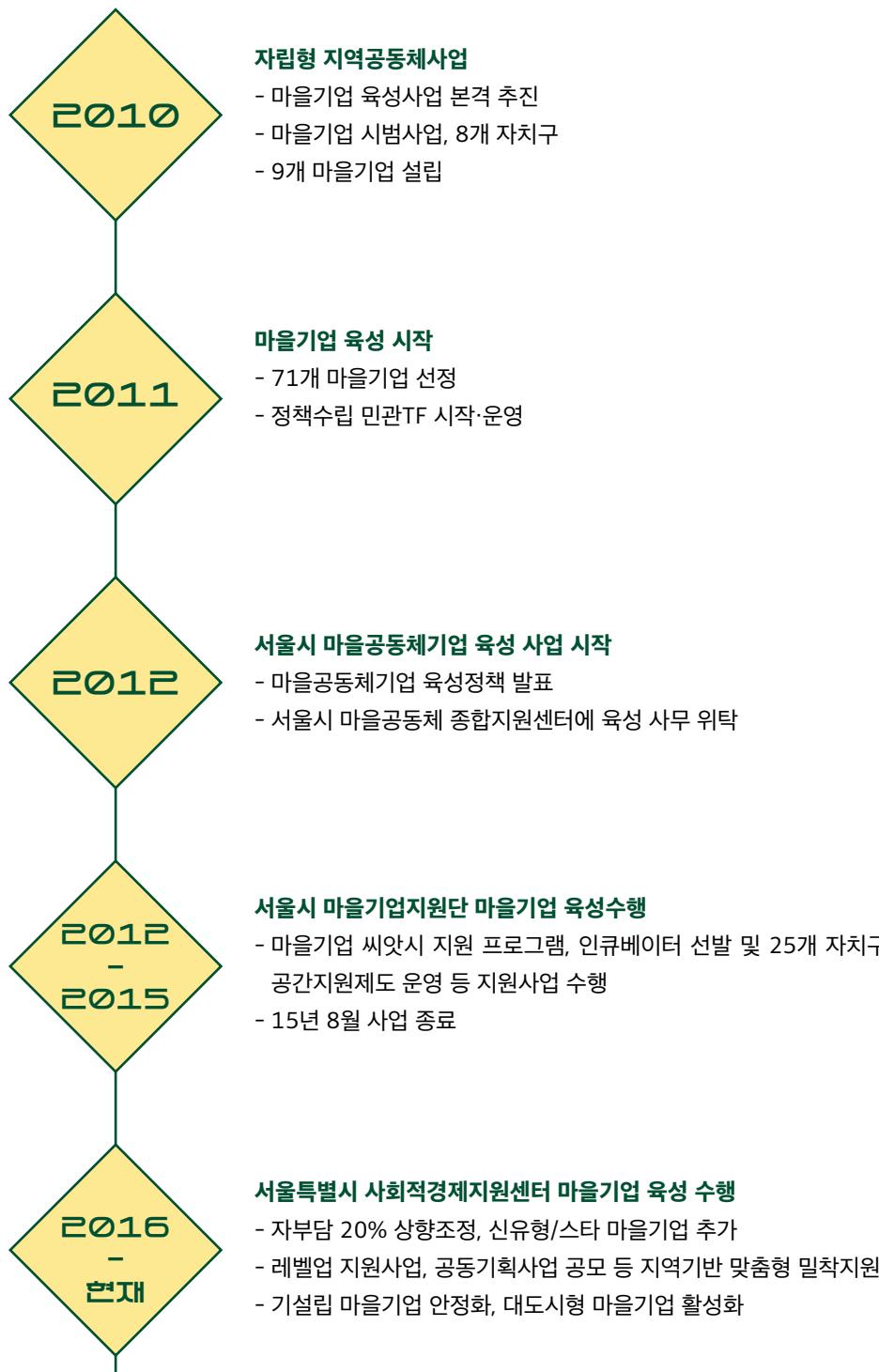


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서울시 마을기업 주요 연혁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기의 시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
서울시민 일상의 회복력, 서울 시민경제
뉴노멀·코로나19 위기시대, 서울시민의 일상문제와 사회문제의 해법 제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 시민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월 23일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경제로의 정책 통합 및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 및 민간 지원 조직들의 허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와 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곳곳을,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조직과 자본을 연결하는 열린플랫폼이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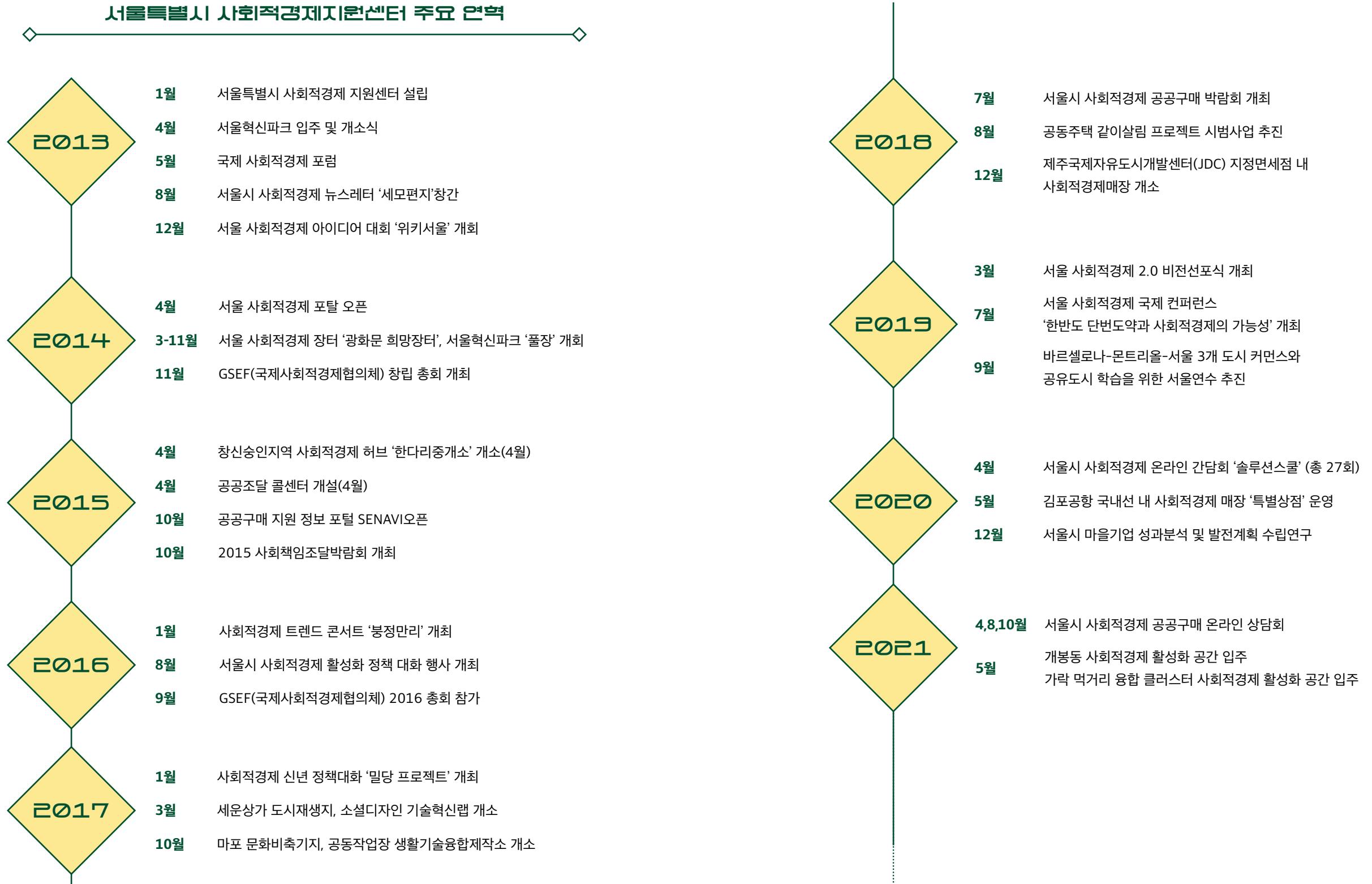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교육, 인재양성
-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지원·컨설팅 및 규모화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등 운영 및 시설 관리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21년

4대 사업추진 전략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개발
-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시민중심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대응력 전환으로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통한 시민경제 가치 확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연혁



강남구
예 (주)바른먹거리학교 전통식품

광진구	예	꾸마시 협동조합	사회복지
신	디디엠메이커협동조합	교육	신
신	문화플랫폼시민나루 협동조합	미디어	

강동구 예 강동약초학교협동조합 교육 고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문화예술

동작구

강북구
로컬 스튜디오490 디자인

강서구	
재	옛고을 협동조합
자역	도시미을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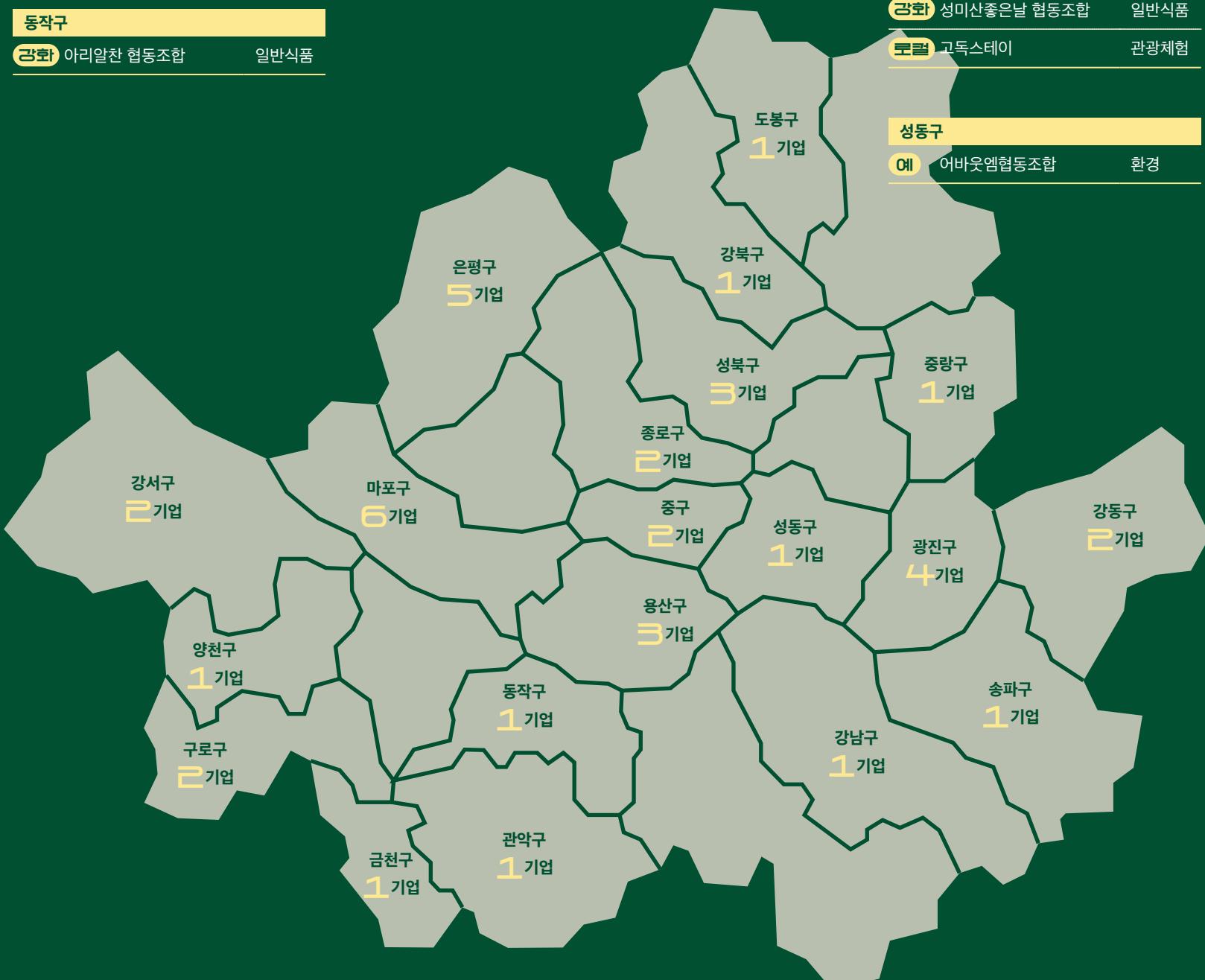
관악구

광진구		
예	마법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
신	힐링아트문화생활협동조합	공예품
재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고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예술

구로구 예 아라청년 협동조합 문화예술 대 무한예술현도조합 결례 무한예술

금천구
강화 수상한 협동조합 문화예술

도봉구



예 예비 신규 재 재지정 고 고도화

지역 지역의제 강화 사업력강화 토털 청년로컬액션

마을기업 유형구분

마을기업
유형 구분

유형	설명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1회차)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재지정 마을기업 (2회차)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3회차)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사업에 따른
분류

유형	설명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ex)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ex)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마을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ex)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마을기업 컨설팅 등

◆ 청년마을기업

추진배경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 발굴·육성
정의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청년기본법』제3조 1호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요건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규모	시도별 1개소 이상 추천 권고
관리	특별히 명시된 혜택·요건 이외는 일반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이 필요하며,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

마을기업 유형별 세부 설명

예비마을기업 목적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의 발굴·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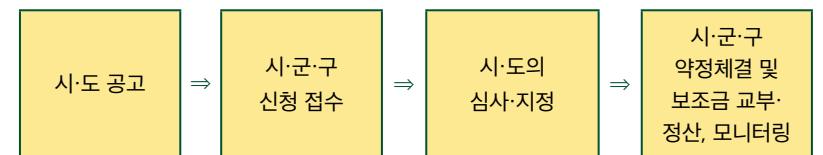
신청 자격 법인 또는 단체 (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보조금 규모 1천만원(자부담 20% 이상), 지정 시기 및 기준 마을기업 지정 시기 및 요건을 참고하여 시·도가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

지정기간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지정절차



육성형 마을기업 목적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

대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지원 사업비 지원(최대 3회 1억원),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박람회 참여, 서울시 마을기업 연합회

구분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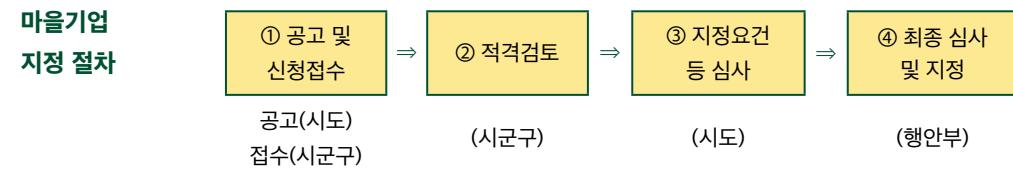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보조금법·마을기업지침 등 규정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나 마을기업의 고의·과실 등으로 공동체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취소된 경우, 그밖에 마을기업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행안부나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는 지정 제외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체계

구분	단계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정사업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11팀
	지원사업	- 예비: 1,000만원 - 신규: 5,000만원	8팀
	재지정마을기업	- 재지정: 3,000만원	5팀
	고도화 마을기업	- 고도화 2,000만원	4팀
지원사업	청년 로컬액션 창업지원	- 액셀러레이팅 - 협력&네트워킹 - 실행사업비 팀당 최대 500만원	5팀
	지역의제 기반 기획사업	-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 사업비 최대 2,000만원	6팀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 개발비 최대 1000만원 - 사전경영진단 1회 - 전문 컨설팅 4회	5팀
자립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판로 및 유통지원 - 홍보 지원 - 서울시 마을기업 연합회 운영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사업 개요



마을기업 지정 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5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6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층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개요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4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
-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마을기업 교육

목적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지원

신규 교육

- **교육대상**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교육이수** : 인원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 심화교육은 회원 70% 이상(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는 10인 이상 이수)

- **교육시간** : 총 17시간

※입문교육(심사 전) 7시간, 기초·심화교육(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10시간

전문 교육

- **교육대상** : 2회차(재지정, 필수)·3회차(고도화, 권장)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 **교육이수** : 인원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 **교육시간** : 4시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유형	내용	지원내용
지역의제 기반 기획사업	지역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지원	- 기업별 최대 사업비 2,000만원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사업비 지원	- 기업별 최대 사업비 1,000만원 - 사전경영진단 1회 진행 -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4회
청년 로컬액션 창업지원 (신규)	지역기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청년조직 및 청 년창업팀 지원	- 전문가 액셀러레이팅 - 협력 및 네트워킹 - 실행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역의제 기반 기획사업

사업명 :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

사업목적

- 지역 수요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내 다자간협력 모델을 전략적으로 발굴·실행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운영
- 마을기업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대도시 마을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의 확산모델 개발

참여대상 : 마을기업이 대표가 되는 자치구 단위 협력네트워크 또는 마을기업 단독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은 육성형 및 자립형 마을기업

사업기간 : 2021년 6월~11월(6개월)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000만원 사업비 지원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p>사업력 강화 지원사업</p> <p>사업명 :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p>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마을기업 중 ‘정체기’ 마을기업의 성장단초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모델의 비대면화 지원 -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사업모델 보완 및 전환 촉진 <p>참여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고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은 육성형 및 자립형 마을기업</p> <p>사업기간 : 2021년 6월~10월(4개월)</p>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최대 1,000만원 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직접적인 기술개발비용 포함)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콘텐츠 제작·개발 비용 »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상품(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비용(디지털화에 따른 기획, 촬영, 편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사업계획에 근거한 기술개발·사업영역확장비용) » 신규상품 시제품제작 및 서비스 개발비 » 특히 취득 비용 » 제품 및 서비스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홈페이지개발·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쇼핑몰 구축 개발비(단 도메인비용 등 재화구매 및 이용기간이 지원사업 기간을 넘는 비용 지원불가) » 상품포장 디자인 신규개발 및 제작비(디자인·실물제작비) » 마을기업 회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단, 경영역량강화에 한함) - 선정심사 전 사전경영진단 1회 - 선정 후 지원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4회 내외 	<p>청년 로컬액션 창업 지원</p> <p>창업지원</p> <p>(21년도 신규사업)</p> <p>사업기간 : 2021년 4월 ~ 10월(약 7개월)</p> <p>사업대상 : 지역기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청년조직 및 청년창업팀</p> <p>참가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형(이하 ‘법인형’): 기 설립 법인 - 비법인 단체형(이하 ‘비법인형’): 법인이 아닌 개인·단체 <p>신청자격(공고일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조직 및 청년창업팀 : 청년*이 3인 이상이면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법인 및 단체 <small>*청년이란: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만19세 ~ 만34세로 규정</small> - 법인형의 경우, 업력 3년 미만의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 기준)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기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 - 22년 신규(청년형)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공모 지원을 희망하는 조직 <p>참가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서울형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선정팀 (최대 10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액셀러레이팅 : 워크숍, 사업분야 멘토링, 사업계획 구체화 지원 - 최종 선정팀 (최대 5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액셀러레이팅 : 워크숍, 심화 컨설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실행사업비 지원 : 총 25,000천원(최대 10,000천원) » 최종심사 통해 선정된 5개 팀에 총 25,000천원 실행사업비 차등 지원 - 후속 사업 참여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참여 연계 지원
---	--

2021 지정사업 마을기업 리스트



기업명		사업명/내용
예비	강동약초학교협동조합	약초활용 교육서비스사업 &조합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악위즐 협동조합	1인가구 건강돌봄 신선농산물 꾸러미사업
	마법마을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자연주의 생태 초등 마을 온종일 돌봄
	아라청년 협동조합	구로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 '스파크'
	주변 소상공인 대상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판매/대행	
	꾸마시 협동조합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돌봄 및 활동지원 사업
	경의선숲길마을정원사회	정원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바른먹거리학교	바른먹거리학교
	어바웃엠협동조합	함께 체인지 업, 장담그기, 판매
	더이음문화생활협동조합	지역의 수요에 맞춘 '예술 커뮤니티 마을강사 양성과정'사업
신규	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로	양천문화스피커
	은평이동돌봄 협동조합	시니어 이동지원 서비스
	디디엠메이커힙동조합	메이커 교육사업
	약수동공가협동조합	약수동 공가 임대 및 마을관리 사업
	힐링아트문화생활협동조합	힐아리(힐링아트문화생활협동조합)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든든한 한끼- 밥상(절기 음식)
	문화플랫폼시민나루 협동조합	동대문 마을이음TV 개발 운영
	주식회사 마을유희	서촌 마을 여행 프로그램 기획
재지정	동부꿈드림협동조합	사랑애도시락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은평시민방송국 만들기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	해피한 동화의 집
	전환마을 협동조합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한 돌봄 먹거리 제공 확대
	협동조합 성북신나	정릉동 유휴공간 활성화 신나는동네, 정릉 프로젝트
고도화	옛고을 협동조합	행복강서, 나눔밥상(매장판매)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마을기업 결애와 지역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로컬 콘텐츠 플랫폼 우리동네나무그늘
고도화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아이야의 <노는> 브랜딩 : <노는꾸러미>와 <노는영상> 개발
	단꿈 협동조합	단꿈 열매 맺기 사업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물류지원 공간 구축

2021 지원사업 마을기업 리스트



기업명		사업명/내용
지역의제	다사리 협동조합	I FUTURE, AFTER SCHOOL
	에듀통 협동조합	은평구 놀이돌봄 플랫폼 개발
	도시마을 협동조합	느리게 걷는 아이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 장애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과후 활동 활성화 사업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중심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프로젝트'
	종구마방 협동조합	을지로 마을창작소 중심 허브공간 구축 및 지역주민과 청년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목화송이 협동조합	온라인 홍보 및 상품 디자인 개발
	문턱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 돌봄서비스 집밥 밀키트 개발 및 건강한 먹을거리 나눔 사업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품질개선 및 제품군의 다양화와 패키지 디자인 변경 및 마케팅 활용
	복촌공예마을 협동조합	브랜드(CI),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신제품 매뉴얼 제작
사업력 강화	아리알찬 협동조합	전문성 강화에 홍보 날개를 달다
	스튜디오490	'기억품' 강북구 지역문화와 이야기를 담아낸다.
	수상한 협동조합	'수상한 창고' 지역 독립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복합문화공간
	불꼬	'랜덤밥스' 기대 이상의 한 끼, 몸에 좋은 배달 음식
	더셰프	'맛있는 실험실' 청년오식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고독스테이	'고독스테이' 새로운 로컬 요식업 여행 서비스 & 복합문화 공간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사업**

2021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기획인터뷰_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로(양천구)

2021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소개

2021 서울시 신규마을기업

기획인터뷰_문화플랫폼시민나루 협동조합(동대문구)

2021 서울시 신규마을기업 소개

2021 서울시 재지정마을기업

기획인터뷰_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광진구)

2021 서울시 재지정마을기업 소개

2021 서울시 고도화마을기업

기획인터뷰_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강동구)

2021 서울시 고도화마을기업 소개

2021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창의적 예술 교육을 통해 종합 공연을 만들고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기관



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로

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로는 2013년 마을주민들의 연주모임에서 시작해 양천문화예술 기획단과 양천생활문화센터 운영, 서울시 골목길 활성화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모인 예술가들이 좋은 예술 공연과 교육의 풀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올해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의 예술인들을 한데 모아내는 '양천 문화스피커'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예술로의 여희선 대표님을 만나 설립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쿨렐레 동아리가 양천구의 예술교육과
공연문화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기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에서 오는 고민보다는 교육자로서의 고민이 켰어요."

오랜 시간 지역의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예술교육 현장과 학교 교육과의 고리나 강사의 처우 등

총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 동호회에서 출발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까지 그 과정과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

제가 양천구에 터를 잡고 일을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예요. 음악놀이학교와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나 기관을 연계하다 보니 다양한 커뮤니티가 생기고 여러 단체를 만들어 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 리더스 우쿨렐레라는 모임에서 시작한 동아리가 2017년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어요. 지역의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연대하여 축제도 기획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되었죠. 양천문화예술 기획단과 양천 생활문화센터 운영, 신월 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울시 골목길 활성화 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을 같이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과 본격적으로 고민했던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2020년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올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지역의 예술가, 예술강사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계시나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예술교육사업과 커뮤니티 활동을 해온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악이나 미술 치료사분들이 계시고, 양천구의 특색에 맞는 숲 체험 강사님도 계시고, 연극이나 인형극 강사, 미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민과 학부모 커뮤니티 사업도 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관련된 프로필을 가지고 분도 계시고요. 공예품이나 제품을 제조를 하시는 분이나 미디어 및 음향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역 안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마주치면서 몇 해 전부터 함께 단체를 설립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법인까지 설립하게 된 거죠.

◇ 마을기업 중에는 육아를 하면서 자녀 교육을 고민하다가 그 것을 사업적으로 풀어낸 케이스가 많은데, 예술로도 그런 고민이 있었나요?

저희는 자녀를 키우는 데에서 오는 고민보다는 교육자로서의 고민이 켰어요. 오랜 시간 지역의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예술교육 현장과 학교 교육과의 고리나 강사의 처우 등 총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양천구청 안에 강사풀이 있고, 문화재단 안에 강사풀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별개로 각자의 강사풀이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성향의 교육과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흘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고민도 많았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매개자

**"자연스럽게 문화공간들을 활용하고
마을지도도 만들면서 변화하는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양천구하면 교육 도시라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예술로의 활동은 양천구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과 연결이 되어있나요?

정책 방향이 교육문화 중심에서 생활 문화로 갔다가 지금은 문화도시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고, 예술에 대한 소양이나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커요. 지역에 있는 테마가 있는 예술 공방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의 가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문화예술 강사들을 소개하거나 좋은 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도우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공간들을 활용하고 마을지도도 만들면서 변화하는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올해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마을기업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을기업으로 가고자 한 계기는 지금 예술로의 구성원이나 사업의 방향이 양천구 안에서 활동할 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이라는 말도 친근하잖아요. 저희는 지역 안에서 교육적인 변화를 원하거든요.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란 형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요즘 예술교육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은 변화가 느리지요. 이런 공백들을 메워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 기관과 매칭 되어서 큰 단위로 움직이지 않으면 흐름을 바꿔내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기업까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양천문화스피커'와 '로컬아트',
양천구의 문화예술 강사들과 작은 공간들을 연결하다.**

◆ 을 한해가 참 다사다난했는데, 예비마을기업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저희가 원래 하던 예술교육의 연장선에서 예술인들과 강사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양천문화 스키피'와 지역의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예술 교육 키트와 콘텐츠 '로컬아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마을기업으로서 의무도 다하고 싶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술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천구에서 코로나로 인한 긴급예산이 편성되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소규모로 예술교육을 매칭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그 연장선에서 예술교육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도 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가로서의 해소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축제나 공기관 행사와 연결하여 강사들이 직접 공연자가 되는 무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예술인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하며 지역 문화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지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올해 12월에 마을기업 공모 나온다고 안내가 와서 저희는 도전해보려고 해요. 예비마을기업 예산은 집행이 끝났고 마무리 과정에 있어요. 내년에는 현재의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로 지역 네트워크에 좀 더 집중해볼 생각이에요.

◆ 마을 기업 안에서도 '마을'에 방점을 두는 분들과 '기업'에 방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술로가 생각하는 마을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마을기업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공신력이나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겠죠. 공동체와는 다른 기업이 되기 위해 적절한 수익구조와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을기업이 먼저 건강하게 운영되어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술성과 경영, 두 가지 다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술로가 마을기업으로서 지역 안에서 그리는 비전이 있다면?

모일 때마다 농담처럼 함께 한 장소로 모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구성원이 대부분이 개별 사업자다 보니 각자 공간이 따로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뭉쳐서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센

터를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마을예술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교육도 이루어지는 예술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 을 한해 예술로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날짜)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창립 기념일인 2월 22일이에요. 7명의 발기인으로 처음 출발했는데, 지금은 16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네요. 내년 멘토링 사업을 위해서 25~30명 정도가 함께 해야 해서 조합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강동약초학교 협동조합

강동구

교육

기업소개

강동약초학교 협동조합은 강동약초학교를 수강한 수료생들이 약초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나아가 사업으로 발전시킨 마을기업입니다. 공동체 텃밭에서 약초를 재배하며 약초 관련 수업을 제공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의 도시농업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과 이를 활용한 친환경제품(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등)을 나눠주는 봉사활동과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약초 활용 교육서비스 사업 & 조합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목적

-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여가시간 활용
- 약초 활용을 통한 힐링
- 이웃과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의존

사업내용

- 약초재배&활용을 위한 교육서비스
-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약초이론과 실습

📞 02-6032-0780 📩 artro2020@kakao.com 🏠 hiarthro.modoo.at
 💎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2길 75 2층
 ✓ 예술교육 및 키트제작, 문화예술 강사 플랫폼, 축제 및 공연 기획

📞 02-471-0799 📩 bell0600@naver.com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75길 13-25 동혜빌딩 304호
 ✓ 약초 관련 교육 서비스사업

협동조합 관악위즐

관악구 식품

기업소개 협동조합 관악위즐은 2017년 12월, 지역 주민의 착한 소비가 지역사회 복지와 공익단체 기부와 연결되는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9명의 공동 발기인이 함께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2018년 도농상생사업을 통해 경북 상주지역의 생산자 조직과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진행했고, 3년간의 농산물 유통으로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의 관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관악구에서 불규칙한 식생활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이웃관계 개선을 위해 제철 채소와 과일 키트를 만들어 배송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1인가구 건강돌봄 신선농산물 꾸러미 사업

사업목적

- 제철채소 샐러드 밀키트 개발
- 제출과일 벌크 꾸러미 개발
- 건강돌봄 농산물 꾸러미 개발

사업내용

- 약초재배&활용을 위한 교육서비스
-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약초이론과 실습

마법마을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광진구 돌봄

기업소개 마법마을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은 방과후 공동육아모임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마을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2020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부모, 아이, 교사, 지역 사회가 함께 돌봄과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며, 성, 지역, 계층, 신체, 장애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합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온 마을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관리와 돌봄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실제적인 마을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자연주의 생태 초등 마을 온종일 돌봄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돌봄 공백 해소
- 부모-아동 선생님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교육이 아닌 자연생태활동 중심의 마을돌봄 실현

사업내용

- 초등 원격 수업 및 방과후 돌봄
- 세사절기 나들이 체험등 문화, 예술, 체육 돌봄

02-6404-1001 gawith2020@gmail.com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98

친환경 농산물 유통, 농산물 밀키트 및 꾸러미 개발

02-444-0657 mintsundae111@gmail.com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0길 76

방과후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진로체험

아라청년 문화예술협동조합

구로구 문화예술

기업소개 아라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은 지역의 교육복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 단체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문화예술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0년 창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광고기획 사업, 구로를 주제로 한 미션키트 사업, 영상 제작, 공간대관 사업 등 구로지역 안에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구로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 '스파크'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사업과 수익구조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 미션키트 제작사업을 통한 구로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및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
- 지역 소상공인의 광고기획 및 홍보대행을 통한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생

사업내용

- Guro, Village, Travle 미션 키트 제작 사업
-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광고기획 및 홍보 대행 사업

경의선숲길마을정원사회

마포구 조경

기업소개 경의선숲길 마을정원사회는 서울시민 정원사 과정을 수료한 주민모임에서 시작해서 2년간 매주 경의선숲길을 가꿨던 자발적 활동을 바탕으로 2020년에 설립된 마을기업입니다. 서울시 공동체 정원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방치된 화단을 주민들과 함께 일구고, 디자인하고,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면서 공유 정원을 통한 이웃 주민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식물을 가꾸고 마을정원을 가꾸는 생태적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정원활동(조성, 관리)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목적

- 마을정원사로서의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마을기업의 주민주체로 성장
- 마을주민들간 교류확대 지원 및 정원과 식물을 함께 가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공동체 관점의 정원활동을 통한 마을 기업 운영

사업내용

- 정원활동 및 역량강화
- 식물/정원교육 및 이웃돌봄/식물분양
-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 070-5043-9595 📩 2020_ala@naver.com

📍 구로구 도림천로 336 진성빌딩 지하 1층

✓ 영상제작 및 편집, 미션키트 제작, 공간대관

✉ yeonsuk21@nate.com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102동 406호

✓ 정원 조성관리, 식물/정원 교육, 식물 분양,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주)바른먹거리학교 강남구 식품

기업소개 (주)바른먹거리학교는 세자율된장媽이란 세곡동 혁신학교 학부모회 모임에서 출발하여 학교와 아이들, 마을을 염려하기 위해 2017년 말에 창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들이 부족한 보금자리지구라는 지역적 특성과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사교육으로만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교육과 바른 먹거리라는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의 근간이 되는 장에 주목하여 4년간 장담그기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을, 취향계층에게는 나눔을, 주민들에게는 장향기 가득한 문화마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바른 먹거리 학교

사업목적

- 바른 먹거리 확산 및 발효 장독대 확산을 위한 기업 및 기관, 단체, 모임 등의 장독대 컨설팅을 진행
- 현대사회에 맞춰 간편한 진행 키트를 활용한 바른 먹거리 만들기
- 발효 전문가 양성을 통해 경력 단절 인력의 일자리 제공

사업내용

- 장독대 확산을 위한 장독대 컨설팅
- 키트를 활용한 쉬운 바른 먹거리 만들기
- 발효 전문가 양성

어바웃엠 협동조합 성동구 환경

기업소개 어바웃엠 협동조합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이끌고 친환경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한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하던 여성주민모임에서 출발하여, '내 일(work)이 있는 엄마, 내일(futer)이 있는 엄마'라는 슬로건 아래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마을 문화카페 운영, 로우 웨이스트 및 친환경 생필품 공동구매 상점, 업사이클링 교육 및 제품 판매등 마을 안에서 미래 가치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함께 체인지 업

사업목적

- 마을카페 친환경 상점으로 친환경 실천 및 친환경 문화 조성
- 마을의 주민(여성)에게 정서적 지지 서비스와 배움터, 쉼터 제공

사업내용

- 주방세제등 생활 속 생필품 공동구매 나눔 상점으로 일회용 용기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문화를 실천하는 착한 생산, 착한 소비
- 지역주민 문화 예술 공예 배움터, 쉼터, 마을 자녀 틈새 돌봄 제공 교육 문화 아카데미 동아리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강좌 개설

✉ inticlub@naver.com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34길 27-5 지하 102호

✓ 장담그기 체험 및 교육, 장독대 컨설팅, 발효 전문가 양성

📞 02-6404-2647 ✉ about-m@naver.com

📍 서울 성동구 마장로39길 33

✓ 마을카페 운영, 친환경 제품 제작 및 판매, 업사이클링&바리스타 교육

더이음문화협동조합

성북구 교육

기업소개 더이음 문화예술협동조합은 지역예술가와 마을강사가 만나 성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가 주관한 코로나19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지원사업을 통해 정릉 시장의 20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커뮤니티 프로그램 '괜찮아 마을이야'를 운영하며 지역 중심의 예술커뮤니티의 효과와 필요성을 실험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예술교육, 역사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등 아동-청소년부터 신중년,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예술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지역의 수요에 맞춘 '예술 커뮤니티 마을강사 양성과정' 사업

사업목적

- 지역마을 강사의 전문역량강화 및 수요에 맞춘 예술 커뮤니티 마을 강사 양성을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 지역 노인대상 문화예술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창의적 노화 사회지원 서비스 제공
-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 기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민주주의 실현

사업내용

- 예술커뮤니티 마을강사 양성
- 지역 노인대상 문화예술 케어프로그램 2개 개발 및 시범운영

은평이동돌봄 협동조합

은평구 복지

기업소개 은평이동돌봄 협동조합은 은평지역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와 50+센터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만난 5명의 사회복지사 여성들이 노인의 돌봄과 이동지원을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장애물 없이 이동권을 누리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건강인프라 부족이라는 은평구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시니어 이동지원 서비스 개시

사업목적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시를 통한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사업내용

- 이동 지원 서비스 개시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사업체 홍보
- 선진 사례 탐방 및 교육
- 유/무형의 제반 구축(차량 렌트, 홈페이지 제작 등)

the-2um.com the2um@naver.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406호

마을카페 운영, 친환경 제품 제작 및 판매, 업사이클링&바리스타 교육

sunmi3514@daum.net

서울 은평구 갈현로 17길 11-4 402호

도보이동 지원, 대중교통 및 자가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원

2021 서울시 신규마을기업

일상에서 문화를 배우고 만들고 즐기는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은 일상에서 문화를 배우고 만들고 즐기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동대문구 마을기업입니다. 2019년 문화플랫폼시민나루협동조합을 본격 설립하고 마을잡지 <인터뷰, 마을이음> 발행하고, 민민협력기반조성 컨소시엄을 결성해 시민자산만들기, 시민사회네트워크 지원, 시민사회 의제공론장 등의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올해는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시민나루TV’(공식명칭)를 개설하고, 동네를 주제로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을 제작했습니다.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의 심소영대표님을 만나 마을기업의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 시민협력플랫폼에서 출발하여
시민나루를 창립하기까지

◆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저희는 2016년도 시민협력플랫폼에서 시작했어요. 1년을 해보니 아직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동대문에서 활동을 하던 시민사회 단체들 간에 벽이 높아서 연대가 어려웠고, 1년 만에 활동이 중단되었어요. 일단 발을 내딛었으니 계속 해보자는 분들이 남아서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공모를 통해서 ‘시민나루’란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고민했을 때, 단체의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단체의 형태는 당연하게 협동조합을 생각하였어요.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맞겠다 생각했죠. 사회적협동조합이냐 협동조합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모델을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복지부나 행안부 중 어느 쪽에 승인을 받을 건지도 정해야 해서 일단 협동조합을 출발하고 향후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창립 발기인으로 총 7분이 참석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과 기업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일텐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전에는 비영리단체 활동만하다가 영리회사를 운영 해보니까 너무 달랐어요. 기업 마인드, 세금, 노무 등 꼭 갖춰야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임의단체 시작하듯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첫 해 좌절감도 많이 느꼈죠. 무식해서 용감했구나.

◆ 시민나루의 첫 사업으로 마을잡지 <인터뷰, 마을이음>을 발행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연대를 위해선 신뢰와 정보가 필요한데 서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있죠. 취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획 회의를 해보니 ‘시민단체’라는 포커스가 너무 좁은 거죠.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주체는 시민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춘 소통매체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지역조사를 겸하여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지역의 문제나 행복의 조건을 알게 되면 앞으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쇄 매체부터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다면요?

청량리 지역을 취재할 때 노인정에서 총무 활동하시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원래 노인정 회장님을 뵈러 갔다가 총무님과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살아서 남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동네에 남편을 일찍 여읜 슈퍼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일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남아야 했던 시절부터 살아오셨던 분들이 가진 인생관을 볼 수 있는 인터뷰였어요. 위대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이며, 이분들의 기억에 동네의 역사이지 않을까요.



마을잡지 <인터뷰, 마을이음>의 발행과 유튜브 채널 <시민나루 TV> 운영하는 동대문을 대표하는 마을 미디어 기업

◊ 참 다사다난했고, 많은 마을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올 한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마을기업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짧은 영상을 제작했어요. 덕분에 영상 관련 일거리들이 의뢰가 오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다문화센터와 함께 약선 요리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진행한 인터뷰를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텀블벅에서 펀딩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일과 제안들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매체를 운영하면서 했던 일들을 비로소 지역에서 안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을기업 심화교육 때 오신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점검해봤는데, 내부적으로도 워크숍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할 핵심가치와 수익 모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공론장이나 회의, 교육사업들을 운영하면서 뒷풀이나 식사가 필수인데 그런 모임을 한 번도 가질 수 없었죠. 그런 게 일종의 식구문화를 만드는 것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막상 감동노동을 하는 시간을 빼기지 않아도 돼서 몸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양가감정이요. 인터뷰나 취재는 모두 개별적으로 진행해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 올해 마을기업 사업으로 진행한 ‘시민나루TV’에 대해서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민나루TV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지면매체에서 영상매체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인터뷰 마을인’은 동네사람을 소개하는 콘텐츠인데, 처음 구상은 영상 자서전이었어요. 보통 장례식장 가면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

것 외에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영상 자서전으로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마을에서 진행되는 소소한 행사를 중계하는 일을 장기적인 우리의 역할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4개 주민자치회와 연결해서 주민총회 생중계를 하면 어떨까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인터뷰 마을이음 9호로 시즌 1이 끝이 났습니다. 그간에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면 시즌 2는 지역 이슈별로 코너를 재편성해서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섭외라는 기준의 방식이 아니라 길거리 인터뷰 등을 통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습니다.

공익과 영리를 병행하는 ‘마을기업’으로 살아남기, 지역의 문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 마을기업 지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받게 된 건가요?

일단 마을기업이란 네이밍 자체에 꽂혔어요. 2018년에는 협동조합을 창립을 준비하면서 마을기업까지 같이 준비했어요. 2018년에 창립 발기인들과 마을기업 집체교육과 심화교육을 받았죠. 교육을 받고나서 ‘아, 지금 마을기업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확실한 수익모델이 있고 그 것을 바탕으로 공익활동같은 다른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죠. 1년을 잘 준비해서 2020년에 예비마을기업 선정이 되었고, 2021년도에 신규마을기업이 되었어요.

◆ 저희도 성북에서 활동하며 ‘신나지’란 지역 매체를 2년 정도 운영했는데, 사업이라기보다 정체성이나 브랜딩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영리활동과 병행했어야 했는데, 시민나루는 어떤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바자회 활동부터 시작했어요. 그 때 모인 돈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더해서 마을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광고를 실어볼까 생각했지만 발행부수가 1000부밖에 안되서 그 것도 불가능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민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에는 협치 공론장 사업을 운영했어요. 지역 문화재단에서 ‘골목스토리 아카이빙’이라는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함께 진행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프리랜서를 위한 기반을 만든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있어요. 의료 보험이나 콜센터도 운영하고, 일자리 나눔도 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도 이런 플랫폼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수익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팀 중엔 마을 단체나 활동에서 출발한 곳들이 많은데, 기업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 터라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주식회사를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는 것과 비슷한데, 능력이 있는 개인이라면 많은 재원과 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면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빠르게 사는 게 마을기업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한다 생각해요. 일보전진 일보후퇴 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지역 사람들과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마을기업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기업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원금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마을기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명확한 가치의 방향이 있어야 마을기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네요

◆ 마을기업은 최대 3년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민나루는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기업의 가치는 지원사업 안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마을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직 수익사업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지정을 통한 스텝업을 고민하고 있고, 성장의 밸침 역할을 위한 예산으로 재지정을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 시민나루가 앞으로 지향하는 지역에서의 역할, 사업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서로 연결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마을기업이자 여성기업인데, 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여성분들이에요.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요. 지역사회에서 양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역의 틈새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보통 동네에서 살다보면 생산하는 게 없이 소비만 하죠. 그러면 자기 삶이 소비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형성과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시나브로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세상을 나의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문화는 안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 올 한해 시민나루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인터뷰 마을이음 시즌 1이 끝난 2021년 8월 20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드디어 끝냈다는 감회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중3 딸이 있는데, 힘들고 아프고 긴 시간을 거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신이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니. 마을이음을

만들고 나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퀄리티를 떠나서 사람들과 같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9편까지 매체를 만들어 냈다는 게 탄생이나 창조의 기쁨이었습니다.

디디엠메이커 협동조합

동대문구

교육

기업소개

디디엠메이커 협동조합은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메이커들이 동대문 메이커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직접 생산한 수공예품도 판매하기 위해 2020년 마을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도예, 목공예, 가죽공예, 자수, 드론, 3D프린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디디엠메이커 협동조합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 메이커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메이커를 양성하고, 취약 계층 대상으로 교육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메이커 교육사업

사업목적

- 지역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4차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제공
- 초, 중, 고등학생들에 다양한 혁신교육을 기회를 제공
- 문화예술 전파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마을기업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역 취약계층 대상 교육봉사를 통해 자기 계발과 직업의 선택폭 확대

사업내용

- 4차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관련 수공예품 판매 사업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교육 및 봉사활동

📞 02-2244- 9623 📩 ddmplf@gmail.com 🎙 UC6el7K9dyetrbb1iSoxOFBg

📍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38 3층

✓ 마을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마을잡지 발행, 지역의제 공론장 운영

📞 02-2232-0927 📩 nacheong2@naver.com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136 옥성빌딩 2층

✓ 메이커 교육, 메이커 양성교육,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약수동공가 협동조합

중구 주거

기업소개 약수동공가협동조합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약수동 동호터널 인근의 방치된 빙집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에게 보금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2019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빙집이 오래 방치되면서 슬럼화된 동네 환경을 개선하고자 빙집 주인들과 협의해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수리한 뒤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월세로 제공하는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관리소를 운영하며 임대주택 및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약수동 공가 임대 및 마을관리 사업

사업목적

- 마을 주거환경 개선
- 사회주택임대사업
- 마을관리 사업현

사업내용

- 마을 주거환경 개선: 버려진 노후주택을 무상임대(5년) 후 개선
- 주택임대사업: 무상임대주택을 수선해 취약계층 및 수급자에 임대
- 마을관리 사업: 임대주택 및 지역 내 노후주택 관리
- 청소년 장학사업: 지역 내 청소년 장학사업

02-2254-1077 sung1077j@naver.com

서울시 중구 동호로8라길 23, 1층 1호

✓ 사회임대주택 운영, 마을 관리소 운영

힐링아트 문화생활협동조합

광진구 제조

기업소개 힐링아트 문화생활협동조합은 광장초등학교 학부모아트공예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던 회원들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부와 교육격차로 인한 이웃간의 소통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의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트공예수업과 수제비누, 캔들, 방향제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힐아리 신제품 제작 및 판매사업

사업목적

-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 및 함께 성장
-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 및 디딤돌 역할
- 지역 내 존재하는 연관된 기관, 사회적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

사업내용

- 주력 상품 개발: 수제비누, 샴푸&바디워시, 주방용품, 소이캔들, 교육용 키트 제작-판매
- 회원 조합원 교육: 리더쉽교육 및 캔들, 비누, 캘리그라피 전문가 교육 실시

easy4040@naver.com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43길8-11 1층

✓ 생활용품 및 아트공예상품 제작-판매, 전문가 양성 교육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용산구

식품

기업소개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독립마켓을 함께 준비하던 회원들이 모여 지역의 역사와 한국의 전통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노인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박물관, 이봉창역사울림관같은 역사적인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가와 절기를 테마로한 음식 케이터링 사업과 지역 탐방 프로그램, 키트와 굿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토박이로 구성된 용산마을협동조합은 주민들이 할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차려주는 것 같은 맛있는 한 끼의 밥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외롭지 않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든든한 한끼 - 밥상(절기음식)

사업목적 - 역사 속에 있는 절기 음식을 통한 역사 체험

- 한국사회 커뮤니티를 밥상으로 배워보기

- 절기음식 강좌와 절기 음식 케이터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절기음식 밥상 케이터링 사업

- 역사 속 인물들의 지역 탐방과 함께 인물들이 먹던 음식 체험

- 절기 음식 강좌

주식회사 마을유희

종로구

여행

기업소개 주식회사 마을유희는 서촌의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여행 경험을 선사하고, 서촌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서촌의 주민, 직장인, 자영업자로 구성된 주식회사 마을유희용 마을안내소 겸 마을 책방 역할을 하는 서촌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지역의 건축가, 디자이너, 기획자와 함께 하는 강연 및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촌을 브랜드로 한 관광 기념품과 전통주를 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서촌 마을여행 프로그램 기획

사업목적 - 서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하나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연계
-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경험을 제공
- 자영업자에게 고객을 모으고 수요를 확산

사업내용 - 서촌의 한옥체험 숙박객을 중심으로 한옥체험시설, 식당, 카페, 소매점 등을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 기획
- 서촌과 같은 구도심의 도시재생, 한옥과 주택을 리모델링한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기업을 위한 전문가 강연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02-717-0981 kom1207@naver.com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66길 22, 3층

음식 판매 및 케이터링, 전통음식 체험, 절기 음식 강좌

58

raymond99@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24

서촌 투어 및 강연 프로그램, 서촌 관광 기념품 및 전통주 제작

59

동부 꿈드림 협동조합

중랑구 식품

기업소개 동부 꿈드림 협동조합은 바리스타 교육에서 만난 주민들이 지역사회 공헌과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중랑동부시장에 자체 브랜드 ‘사랑애 도시락’ 매장을 오픈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돌봄 SOS도시락 생산과 푸드마켓과 연계한 2+1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사랑애도시락

사업목적

- 우수한 인재에게 기업의 비전을 통한 개인의 가치 실현
- 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자리, 인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의 성장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부족한 지역돌봄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긴급돌봄 SOS 식사지원 서비스
- 동부시장 내 사랑애 도시락 매장 운영
- 기업 및 관공서 주문형 도시락 제작
- 정기 배송형 도시락 판매

02-437-4485 dongbucoop@gmail.com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32길 23

도시락 판매, 도시락 주문제작, 도시락 정기배송, 긴급돌봄SOS식사 서비스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은평구 미디어

기업소개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은 은평구의 마을미디어 자원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2019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모습이 담긴 마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마을방송국으로서 유튜브 영상제작과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교육,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장비와 기술 지원, 은평구 관내 행사 영상촬영 및 스트리밍, 소상공인 및 청년점포 홍보 영상 제작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은평시민방송국 만들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사업목적

- 은평시민방송국 구축
- 은평마을미디어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 정기적인 시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라이브 커머스 중계와 기술 구축

사업내용

- 은평 시민 방송국 구축
- 은평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 정기적인 시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라이브 커머스 중계와 기술 구축

02-383-1818 sjy41900@naver.com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 9층

✓ 은평 시민 방송국 운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라이브 커머스 중계,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2021 서울시 재지정마을기업

동화에 진심인 할머니가 만든,
동화에 진심인 마을기업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은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인근에 위치한 마을기업으로 동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옛이야기 전수자 양성, 그림책 스토리텔러 양성, 오감놀이 지도사 양성을 통해 지역의 시니어들이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래동화연극, 음악극, 마당극, 인형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활동과 전래동화에 관한 여러 문화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만들며 시니어들의 활동 영역과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마을기업 재지정을 통해 '동화의 집'이라는 공간을 오픈해서 작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와,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자체 동화 콘텐츠들을 살 수 있는 동화마켓 등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아이부터 시니어까지 지역 주민과 회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이사장님을 만나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기까지의 스토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 동화 작가를 거쳐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기까지

"저는 동화 할머니로 늙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회원으로 오라고 해요."

◆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설립 전까지의 대표님의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유아교육과 교육학을 전공하고, 유치원 원장으로 30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터득한 것은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기초에는 문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화는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문학이에요. 아이들이 느끼며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2000년에 동화작가로 등단해서 64편의 동화를 썼어요. 유치원 교사와 유아 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백일장이나 공모전 심사도 다니고 있어요.

◆ 가장 좋아하는 동화는 어떤 것인가요?

전래동화를 좋아해요. 판타지가 있는 동화와 환상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작품을 좋아해요. 제가 쓴 동화 중에는 <못난 잠자리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는데,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자신을 못생겼다고 여기는 아기 잠자리가 있는데, 달님과 달맞이꽃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푸른 하늘을 맘껏 날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스스로를 부족하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 동화 외에도 다른 취미가 있나요?

모든 취미가 동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동화로 어른과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노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동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내가 많은 책을 봐야지만 남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이야기 만들기 위해서는 개작을 해야지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하면 듣고, '오징어 게임'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콘텐츠도 틈틈이 챙겨보고 있어요. 흐름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도 정치도 시사적인 것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올바른 판단과 견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마을기업 지정.
순탄치 않은 길을 거쳐 동화의 집을 오픈하다.

"여기서 일어나는 동화냄새 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고,
마을기업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시게 되었나요?

2007년-2008년에 문화관광부와 삼성재단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제가 강사로 유치원에 나가서 정서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집을 개방해서 동화로 콘텐츠도 만들고 동시, 동화 소품도 만들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마침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노인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서울시에서 상도 받고 시청 강당에서 노래극도 발표하다보니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화로 누군가에게 일터를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7년에는 마을기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 설립 후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마을기업 1회차 지원을 받고나서 기업으로서 수익 창출이 어려워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마을기업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한국동화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좋은 콘텐츠와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큰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높은 담장부터 허물자는 생각을 했어요. 담장을 헐고 나니 희망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동화 냄새 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고, 마을기업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이 ‘동화의 집’인 거네요. 소개 부탁드려요.

동화의 집은 아침 6시부터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1층에는 직원 사무실과 작은 강의실이 있고, 2층에는 넓은 홀과 이사장 방이 있습니다. 3층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에요. 앞마당에는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주간 보호센터 계신 분들께 동화와 동극을 선보이고 있지요. 동화소품 제작과 전시도 하고 있고, 동화와 관련된 소품 판매도 하고 있어요.

◆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은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어요. 저희가 광진구 정보도서관에서 13년 동안 실버 동화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수강생들이 많아요.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60세~80세 분들이 50명, 문화원에서 오신 30세~50세 분들이 50명 총 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인적자원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활동 할 수 있죠. 자격을 따고 조합원이 되면 동화 소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소품부,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봉사부 등 각 부서에 들어가 알맞은 일을 하죠.

◆ 마을기업으로서 지역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나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부모 교육도 하고, 또 작년에는 주민들에게 50시간의 스토리텔러 교육을 통해 자격을 따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이런 교육은 조부모에게는 손자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을 하는데 좋지요. 또 동화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 마을기업에서 시니어 분들이 많은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들은 행정이나 경영 부분이 약해요. 전문 인력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 판로가 불투명하니 투자하기가 어렵고 겁이 나지요.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원만 있는데, 이왕이면 판로에 대한 고민도 지원사업 안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아이들 교육 과정에 맞춰 동화 소품이나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과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들의 정서돌봄과 일자리 창출,
부모들의 자녀교육 어린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K-동화**

"K-동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K-동화도 세계적으로 재미있고 철학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스토리텔러 및 오감놀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노인을 챙기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 프로그램을 살려서 노인과 중장년 세대의 정서를 체계적으로 챙기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싶어요.

다양한 세대가 자신의 이야기로 콘텐츠를 만들게끔 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래시를 만든다든지, 노인들은 삶의 이야기나 좋았던 것들을 정리하는 자서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이 지역에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 각 동마다 전설들을 극화해서 지역 아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 대표님이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K-동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K-팝이나 한국의 놀이를 소재로 한 오징어게임이 세계 인



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K-동화도 세계적으로 재미있고 철학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뜻이 맞는 사람들과 동화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 마을기업으로 올해 365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요양기관 정서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는데, 광진구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동화 선생님을 모셔달라는 요청을 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마을기업 선정된 날도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에요. 타성에 젖어있지 않고 성심껏 고민하며 마을기업을 진단하고 들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어요.

📞 02-463-8018 📩 story1815@naver.com

✓ 동화 콘텐츠 제작(공연, 인형극, 교구 및 굿즈) 동화의 집 운영,
스토리텔러 및 오감놀이지도사 양성 등

전환마을 협동조합

온평구 식품

기업소개 전환마을 협동조합은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파는 마을식당 ‘밥풀꽃’을 운영하는 주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함께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일회용과 육식 중심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운동을 위해 마을식당 ‘밥풀꽃’ 운영과 돌봄SOS사업, 지역 기관의 도시락 납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적경제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지역의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유통되는 식자재를 사용하여 지역의 먹거리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한 돌봄 먹거리 제공 확대

사업목적

- 기후위기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해 대안적 삶 모색
- 사회적 약자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한 삶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
-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요파악과 사업확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사업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돌봄 도시락 사업:** 건강약자들을 위한 영양을 고려한 친환경 식단 개발하고 일회용 도시락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고려한 배달용품 사용. 직접 배송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의 돌봄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 **채식,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판매:** 친환경, 채식 점심식당을 운영하고 도시농부들과 협동조합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

02-387-1129 bagjingam@hanmail.net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5길 8, 1층

친환경 식당 밥풀꽃 운영, 도시락 배달 및 납품

협동조합 성북신나

성북구 공간

기업소개 협동조합 성북신나는 지역재생과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위해 2014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지역 기반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유자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동네 정릉 프로젝트는 정릉동의 유휴공간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유부엌을 시작으로 흙시어터, 동아리방, 라운지 등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정릉과 정릉동을 모티브로 한 지역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신나는 동네 정릉

사업목적

- 주민을 위한 생활형 SOC 개발 및 주민편의증진
- 지역연계 상품 제품 제작을 통한 마을 브랜딩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및 주민들의 부수입 창출하여 마을의 자족기능 증진

사업내용

- **공간 대여 서비스:** 오랫동안 쓰임없이 방치되어 있는 정릉동의 작은 공간들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담긴 공간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 **지역연계 상품 제작:** 정지역 상권과 연계한 정릉동 브랜딩 제품 개발과 무인 판매 시스템 구축

070-5104-1402 info@sinna.us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19길 10

✓ 신나는 동네 정릉 공간 운영(공유부엌, 흙시어터, 동아리방, 라운지), 정릉동 기반 굿즈제작

옛고을 협동조합

강서구 식품

기업소개 옛고을 협동조합은 양천향교 여성유도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8년 창립한 마을기업입니다. 강서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경복궁쌀로 조청, 고추장, 한과 등의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5-60대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행복강서, 나눔밥상

사업목적

-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지역 쌀(경복궁쌀)을 이용한 지역 특산물 제공(조청, 한과, 고추장 등)
- 전통음식/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강한 식문화 형성

사업내용

- **바쁜 현대인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사업:** 일 5개 이상의 밀반찬 제공, 다양한 김치 판매, 전통음식(된장, 고추장, 한과, 조청 등) 판매

02-2659-7713 bagjingam@hanmail.net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49길 34

전통음식 제조 및 판매(조청, 고추장, 된장, 밀반찬, 김치 등)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구로구 문화예술

기업소개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는 문화예술과 사회적경제 특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아트테라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배꼽 빠지는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에서 출발한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 안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테라피'를 통한 청소년 심리 돌봄과 진로 연계, 마을 그림책 <그림책 공장> 제작, 북카페 공간 운영 및 커피제조를 비롯하여 지역 내 다양한 공연, 행사, 전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마을기업 결애와 지역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사업목적

- 지역(인적, 물적, 공간, 역사)자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리서치-예술창작-아카이빙』의 안정된 지역특화기업의 프로세스 구축
- 예술을 매개로 주상을 구체화하는 지속가능한 예술창작의 토양을 만드는 지역기반문화공동브랜드 플랫폼 구축
- 커피 제조사업분야 안정화

사업내용

- 지역서사기반 아카이빙 전시 콘텐츠 제작
- <詩에 담긴 커피> 로스팅랩 전투력 상승 프로젝트

070-5104-1402 info@sinna.us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19길 10

✓ 신나는 동네 정릉 공간 운영(공유부엌, 흙시어터, 동아리방, 라운지), 정릉동 기반 굿즈제작

2021 서울시 고도화마을기업

청년을 품고 은퇴를 늦추자,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마을을 만드는 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는 2013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잠시 무대를 떠나있었던 극작가, 연출가, 배우, 안무가, 작곡자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뚱꼬가 셋!>, <수상한 외갓집>, <청춘악극 당신의 노래>, <안녕?안녕!안녕...>, <어디로갈래?> 등 다양한 창작뮤지컬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 예술, 생활문화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비대면으로 연극을 관람하거나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노는꾸미리'와 '노는영상'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아이야 정가람 대표를 만나 회사에 대한 소개와 마을기업 3년차에 대한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잠시 무대를 떠나있었던 예술가들이 다시 극단을 만들기까지

**"육아를 통해서 저희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육아라는 새로운 경험이 더해진 게이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야'로 지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협동조합아이야에 대한 간단한 연혁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공연기획 및 제작을 하고, 마을 그림책도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 아이야입니다. 2013년 작은 도서관의 동아리에서 출발해 16년까지 다양한 인큐베이팅을 받고, 2017년 도에 사회적기업가 육성가과정7기로 협동조합을 창업했습니다. 2018년도 신규 마을기업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마을기업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차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가, 배우, 연출가, 작곡가, 연출가, 디자이너 등 공연 관련 예술가들 16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후원해주시는 10여분의 회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이름인 '아이야'는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마을극단 밥상'이었다가 협동조합으로 나오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육아를 통해서 저희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육아라는 새로운 경험이 더해진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름을 '아이야'로 지었습니다. '나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마을의 문화예술들판'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도 동네에서 공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일치하니까요. 마을기업이 된 것도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결혼과 육아로 오랫동안 무대를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온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모두가 누리는 마을문화'가 소셜미션인데. '모두'에는 계층적으로 소외당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육아나 생계 등의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차에 세운 비전이 '청년을 품고 은퇴를 늦추자.'인데, 초창기에는 육아를 병행하는 30대 후반 여성 예술가 중심이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가 입시를 가르쳤던 후배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또 선배 그룹 중에 오디션에 나이제한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도 지원서를 못 내고, 또 나이 때문에 한정적인 배역만 해야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축멤버들도 중년을 앞두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청년을 품고 은퇴를 늦추는 조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같이 한팀이 되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아이야의 경우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극단이라는 성격도 있는데, 마을기업이 아닌 마을극단으로서 지역 안에서 하는 활동이 있나요?

마을극단이라는 명칭은 초창기에 썼고 지금은 마을기업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활동은 전국적으로 다니기도하고, 마을기업이라해서 사업의 영역이 굳이 마을에 한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운영 중인 공간에서 여러 동아리와 공간을 같이 쓰기도 하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뮤지컬의 한 장면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강동구에 있는 7-8개의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 7-8개 팀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어요. 고덕동 재건축을 주제로 한 소셜디자인 프로젝트 축제도 하고, 강동의 역사와 전설을 담은 그림책을 만들면서 공연과 전시, 체험을 같이 즐기는 마을축제도 크게 열었어요.

대면일 때 가장 재미있는 공연을 비대면으로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노는영상>과 <노는꾸러미> 제작하다.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문화예술 영역의 마을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연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많은 제한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한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활발하게 다니진 못했지만, 2019년도 말에 만들었던 <수상한 외갓집>이란 공연이 평가가 좋아서 초청 공연을 몇 곳 다녔어요. <수상한 외갓집>은 손자들이 오래된 외갓집 한옥 곳곳을 누비며 사고도 치고, 집지킴이 귀신도 만난다는 전통연희에 기반한 작품입니다. 교육적으로도 좋고 정서적으로 삼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라 내년에도 많은 곳에서 관객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아예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는 공연을 영상이나 키트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샘플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올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사업을 진행했죠.

↑ 저도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는걸 좋아하는 편인데, 비대면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란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며 공연을 하다 보니, 잘 노는 공연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노는뮤지컬', '노는예술', '노는그림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한 편의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를 8개의 '노는꾸러미' 샘플작업을 했고, 그 과정을 올해 '노는꾸러미 수상한극장' 안에 하나로 담아 보았어요. 종이상자 윗면을 커팅해서 그 안에 조명도 넣고 무대와, 등장인물을 세워보는 공연체험키트예요. 종이상자로 무대를 만들고 극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는영상'은 공연은 대면일 때 가장 재미있는 현장 기반의 예술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대로 찍어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용으로 따로 공연을 연출해봤습니다. 동선이나 대본, 호흡 등을 완전히 달리해서 영산이란 콘텐츠에 딱 맞춰서 대본을 새로 쓴 거죠. 반응이 좋다면 극장이나 가정에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과 가능성의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3년차 고도화 사업을 마치는 소회

**"마을기업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공연/교육 콘텐츠들을 제작했고 시설도 준비했으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올해로 3년차 고도화까지 지원사업을 마쳤는데,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어떤 도움을 주었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공연을 주로 하다보니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요. 2017년에 공간을 처음 얻었을 때 원래 창고라 리모델링에만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방음시설은 못했어요. 그랬더니 공연연습을 하면 소음 때문에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 되자마자 방음시설부터 갖추었어요. 기자재나 설비도 많이 구입했고, 재지정 때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2개의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올해는 고도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즐기는 노는영상과 키트 노는꾸러미를 제작해



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했죠. 마을기업을 통해 계속 갈 수 있는 공연/교육 콘텐츠들을 제작했고 시설도 완비했으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시겠지만, 육성형 마을기업을 마무리한 평가나 소회가 어떤가요?

시설과 설비에 아낌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다른 지원사업은 자산 취득성 사업비를 아예 못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쉬운 점은 마을기업은 지정이고 사회적 기업은 인증인데, 사회적기업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부족해요.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사업할 때 사회적기업만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구요. 이러다보니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가로 준비 해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마을기업연합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거나 관련 법령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문화예술 단체다보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기업 후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처음에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합원이 16명까지 늘어나니까 조합원들의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충족시킬까하는 고민이 많아요. 더 많은 공연과 교육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이제는 5년쯤 되니까 각자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운영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제가 연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마지막 임기라,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또 차기 이사장 몇몇 후보들에게 운영에 따른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장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에요.

◇ 새롭게 마을기업 영역에 진입하시는 분께 도움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신규 마을기업 사례교육을 몇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사업 제안서를 쓸 때 몇 명만 준비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하세요’입니다. 또 사업 선정이 되어도 예산이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계획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완성도 있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도 뭘 몰라서 1차년도에 세부 사업을 5개나 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우리 조직의 미래를 위해 기반이 될 사업에 집중해서 2~3 사업 내에서 추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을기업 예산으로 제대로 된 제품이나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두고두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올 한해 아이야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날짜)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올해 1월에 서울아시테지 겨울축제에 개막작 공연을 했어요. 저희가 2013년에 둘도 안

된 애들을 업고 모였을 때 ‘우리가 지금은 작은 도서관에서 동아리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아시테지축제(어린이 가족극 축제) 무대에 서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 이러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8년 만에 2021년 개막작으로 무대에 서는 날, 초창기 멤버인 저와 이사님이 울컥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연을 포기할 뻔했는데, 작은무대에서 다시 시작해서 꿈에 그리던 무대까지 왔구나. 그때 등에 업혀있던 갓난 아이가 아홉 살이 돼서 공연을 보러 왔으니 우리가 꿈 하나는 이뤘구나!’ 라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우리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

마포구 공간

기업소개

우리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은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마을카페 ‘우리동네 나무그늘’을 중심으로 2013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음료와 간식을 파는 마을카페 나무그늘, 기증물품을 되살려 파는 소금꽃, 법률/노무/세무/재개발 관련 상담을 하는 생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와 공연, 생활 강좌와 주민 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포지역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로 존립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해빛투게더 시민자산화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지속 가능한 로컬컨텐츠 플랫폼 우리동네 나무그늘

사업목적

- 주민이 유무형의 컨텐츠로 지역사회에 참여, 지역공동체 등 활성화에 기여
- 로컬 컨텐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플랫폼 구축
- 컨텐츠 생산 주민과 마을기업이 수익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 정착

사업내용

- 로컬 컨텐츠 플랫폼 활성화
- 지속 가능한 우리동네, 우리공간

📞 010-5493-8394 📩 artcoopiya@gmail.com 🎫 artcoopiya

📍 (연습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4 B1

(사무실)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88, 1층 101호

✓ 찾아가는 맞춤공연 <노는뮤지컬>, 공연예술 체험키트<노는꾸러미>, 생활문화예술교육

📞 02-6408-5775 📩 ournamucoop@gmail.com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3-1, 2층

✓ 공간운영(슬금슬금), 홍보 및 행사

단꿈 협동조합

용산구 제조

기업소개 단꿈 협동조합은 용산구 동자동 일대의 쪽방촌 거주민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2018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전통한지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단꿈한지공방을 열고 지역주민과 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교육 및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죽공예, 천공예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작품을 만들고 교육하여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수익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한지공예품 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 크라우드 펀딩, 쇼핑몰 입점 등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단꿈열매맺기

사업목적

- 동자동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및 청년에 대한 일자리창출
- 한지공예교육을 통한 지역통합 및 지역공동체형성
- 한국의 문화인 한지공예를 계승 및 홍보

사업내용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단꿈열매맺기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

광진구 디자인

기업소개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문화·예술·디자인·교육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방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마을로 플랫폼은 주민, 마을기업, 정부기관의 소통공간으로 지역의 정보공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연구소와 평생교육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디자인·교육 활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물류지원 공간 구축

사업목적

-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영세 마을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물류지원 공간 구축
- 최근 시장의 유통환경은 무노력쇼핑, 무경계, 무인매장, 무현금결제, 무첨가식품 키워드로 급변
-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쇼핑의 지속적인 성장(대기업 쇼핑 앱 및 배달서비스 플랫폼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의 체험형 유통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
- 지역 주민을 위한 이커머스용 물류지원 공간을 구축하여, 주민 모두가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경제 주체로 활동 지원

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물류지원 공간 구축
- 자체 유통시설 마련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 거점 확보

070-8151-1216 luvhaja@naver.com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길 70

✓ 공방운영, 한지공예, 한지공예 교육

02-457-1210 cobaltscoop@naver.com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1길 23 현덕빌딩 3층

✓ 공동육아, 먹거리, 산업 디자인, 도심소규모유통



2021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2021 서울시 청년로컬액션 창업지원사업

단체 인터뷰_수상한협동조합(금천구)X스튜디오490(강북구)

2021 서울시 청년로컬액션 지원사업 참여팀 소개

2021 서울시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기획인터뷰_아리알찬 협동조합(동작구)

2021 서울시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마을기업 소개

2021 서울시 지역의제 기반 지원사업

기획인터뷰_도시마을 협동조합(강서구)

기획인터뷰_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마포구)

2021 서울시 지역의제 기반 지원사업 마을기업 소개

2021 서울시 청년로컬액션 창업지원사업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수상한협동조합
X
스튜디오490

‘2021년 청년로컬액션 창업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청년세대의 마을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청년단체나 법인에게 액셀러레이팅과 사업비 지원, 후속 연계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스튜디오 490 (송혜리)과 수상한 협동조합(김명환) 두 팀을 만나 청년로컬액션사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업과 청년로컬 액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까지

◆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튜디오490 안녕하세요. 스튜디오490 협동조합입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사회적경제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이 지식을 지역재생의 현장에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장소나 사업을 아카이빙 해서 이것을 지역 굿즈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함께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역성’을 느낄 수 있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을 모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협동조합 ‘수’천 개의 ‘상’성이 가득‘한’ 협동조합,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조합이 되고 싶은 수상한 협동조합입니다. 금천구를 주 활동지역으로 삼고 있고 주업종은 영상 제작인데, 재미있어하는 것은 공연과 행사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10명이고, 그 중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처음 지역에 자리 잡게 된 배경과 어떤 지역의 이슈들을 주목했는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490 저희는 한신대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캠퍼스타운 사업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의 요청으로 강북구에서 지역재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풀뿌리 시민운동이 활발하고, 주민들이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도시재생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의 홍보나 활성화를 위한 위한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침 캠퍼스타운을 통해 강북구를 대표할만한 지역 굿즈 등을 찾는 시도를 하게 되었죠.

수상한 협동조합 2017년 서울문화재단에서 했던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금천구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2018년도에 어울샵이라는 공간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면서 금천구에는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죠. 구청의 문제과나 재단은 지역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 단체들과 협업하기 보다는 기획사처럼 일을 한다는 인상이 있었고, 저희가 제대로 활동해보자 해서 금천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 올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나요?

스튜디오490 올해 활동은 지역 책자 작업, 굿즈 펀딩, 전시, 지역사업 참여 네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에요. 저희는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올해 중순에는 누구를 만나기가 조심스러워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도 점차 상황이 나아지고 익숙해지면서 차차 활동이 원활해져서 다행이었죠.

수상한 협동조합 저희가 실질적인 설립은 작년 9월~10월이에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었는데, 영상제작이 주사업이다보니 오히려 많이 바빠어요. 지역 내에서 각종 주민자치회의 행사나 구 단위 사업, 민주 연구원 지원사업들을 촬영이나 온라인 스트리밍을 지원했어요. 다만 올해 공간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공간 기반의 기획이나 공연을 사실상 포기해야 했고 내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자체 행사나 축제, 공연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각자의 기업이 생각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사업은 어떤건가요?

수상한 협동조합 기본적으로는 영상 제작과 축제 기획인데, 흡사 종교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다보면 저희를 지지해 줄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세련되게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다보면 자연스레 저희의

지지자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정 수요나 참여가 생기면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죠.

스튜디오490

현재는 디자인 중심의 외주 용역이 주요 수입원이에요. 강북구 지역사업에서 마을 기획이나 디자인 용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지역 기반 굿즈사업을 시작했고,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래퍼런스를 쌓으면서 브랜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역 재생 사업을 할 때 아카이빙과 관련 굿즈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거에요.

지역 아카이빙과 굿즈 제작까지 전방위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목표인가요?

스튜디오490

굿즈는 수입원이라기보단 우리가 지역을 표현하고 브랜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카이빙이 더 핵심인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개인 아카이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오래된 점포들이 문을 닫고 노인분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면서 기억들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늘면서 그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년로컬액션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고,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나요?

수상한 협동조합 금천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소식을 알려줬어요. 저희도 서울시 사회적 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봐서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올해 초에 마을기업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청년로컬 액션이라는 사전 단계가 사업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저희 활동의 방향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490

캠퍼스타운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강북구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가 일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임시적인 활동으로 중단을 할지 고민이었는데, 청년로컬액션이 지역-청년-기록에 대한 것을 포괄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문가인 제 3자의 진단과 실험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청년 로컬액션 지원사업,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

◇ 두 팀 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진단과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었군요. 청년로컬액션을 통해서 액설러레이팅, 워크숍, 사업비 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셨는데, 참여자로서 해당사업을 평가하자면 어떠셨나요?

스튜디오490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소통하면서 갔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멘토님과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서로 대화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요. 부가적으로는 서류작업이 좀 힘들었어요. 비용 처리같은 것도 계속 확인해가면서 해야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만족입니다.

수상한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해요, 아쉬운 부분은 예산 사용에 있어 제한이 많아요. 저희는 홍보가 중요한데 총 예산의 10%로 제한 되어있어 아쉬웠어요, 그리고 멘토링이 매주 진행되는데, 뭔가 변화된 지점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좀 텁을 여유롭게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490 저도 동의하는 게, 좀 더 텁을 두고 멘토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숙제 검사받는 기분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매주 뭔가 보여드리고 만나야 하는데, 매주 진전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 청년로컬액션은 일종의 마을기업의 마중물 사업인데, 이후에 마을기업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수상한 협동조합 저희는 마을기업 지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하기에 마을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맞는 것 같고 사업비도 필요해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도 고민했는데 마을기업이 저희의 성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490 저희는 최종적으로 추구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역에만 한정을 두는 게 아니라서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캠퍼스 타운을 중심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가 생기면 마을기업 지정을 고민하겠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마을기업의 한계와 가능성

◇ 같이 나눠보고 싶은 고민이 현재 마을기업에 주로 참여하는 세대가 중장년이 중심인데, 청년세대의 유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상한 협동조합 ‘마을’이라는 게 예스럽고, 정겹고, 세련되지 않은 이미지가 있죠. 마을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청년세대의 인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명칭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490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는데,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보면 동네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릴 거예요. 하지만 마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매력을 느낄거라 생각해요, 예스럽고 촌스러운 것이 정말 싫었다면 종로나 을지로 같은 동네가 뜨지 않았을 테고 레트로 콘텐츠에 대한 니즈도 없었을 것이에요. 마을 사업도 충분히 세련되게 재구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여담이지만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젊은 분들이 와서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설립 절차가 다른 법인 형태에 비해서 어렵고 복잡한데 반해 뚜렷한 이점은 적죠. 일반법인보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개념 이해도 어렵고 설립도 어려워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문턱이 높아요. 막상 현장에서도 좋은데 힘든 일 하시네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 해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마을기업’으로 번안한건데, 이 두 용어 사이의 어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마을 대신 ‘로컬’이라 하거나 그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마을기업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나 마을 공동체 영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최근들어 코로나로 인한 산업의 변화와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체감이나 전망이 순탄치는 않은데, 이제 막 발을 들인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상한 협동조합 저희 같은 경우 다들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사회적경제를 실현해야지라는 비전을 가지진 않았어요. 내가 즐거워 하는 일로 밥벌이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공이나 정치적 상황에 기대지 않고도 유지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스튜디오490 저희 구성원들의 전공이 사회적경제 분야인데, 교수님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지속가능성이에요.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니 절실하게 느끼는 게 사회적 가치



치라는 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단지 좋은 일 하니까 밀어 주세요가 아니라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역으로 궁금하게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으로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는 이유는?

◆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또 다른 고민 중 하나가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일반적 이니 않은 진로 설정에서 오는 내외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튜디오490 일단 제 가족들은 저의 활동을 지지해주세요. 기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똑같이 바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데서 오는 만족감이 커요. 물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불안이 없지는 않은데, 당장의 불안에 끌려가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진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수익도 내고있는 상황이니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수상한 협동조합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살 것인가 꿈을 위해서 살 것인가 둘을 딱 나눌 순 없지만 저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살고 싶어요. 사회적경제 안에 있는 기업은 확실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나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만 서있다면 동료나 친구,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청년’이라는 나이의 범주 때문에 ‘청년 마을기업’의 시효를 10년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의 모습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수상한 협동조합 저는 확고해요. 2년 뒤에 쿠바에 가서 그곳의 정취를 눈에 담은 다음 10년 뒤엔 바닷가에 있는 별장을 하나 구입해서 펍을 열고 싶어요.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하는 소셜 펍이요. 지금도 팀원들과 장난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평생을 한 지역에만 살아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떠나는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데 되더라도 현재 지역에서의 일은 잘 갈무리하고 멋있게 떠나고 싶어요.

스튜디오490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10년 뒤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서 저희 사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다양한 굿즈를 채운 공간도 만들고 계속해서 의미를 작업들을 쌓아가고 싶어요. 쿠마몬 보러 일본에 가고 코알라 보러 호주 가듯이 그렇게 한 지역이 기억에 남는 시그니처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날짜)를 꼽는다면 언제이며 그 이유는요?

스튜디오490

6월 11일이요. 저희 팀이 청년로컬액션 선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차에는 발표 자료가 없어서 고생했고, 2차에는 심사 반응이 안 좋아서 사실 기대를 안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먹었던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는 문자를 받아서 정말 인생사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란걸 경험한 하루라 기억에 남네요.

수상한 협동조합

'수상한 공간'을 오픈했던 8월 25일이 기억에 남아요. 그 전에 독산동 이란 곳에 공간을 운영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 공간을 오픈한 건데, 시작할 때의 설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았던 날이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의 상점가 인터뷰 및 선진사례 탐방

- 춘천일기, 증평기록관 총 2곳 인터뷰와 탐방 진행
- 지역상점 3곳 인터뷰 시행

강북구 수유동의 상점제휴를 통한 '기억풀' 펀딩 런칭

- 신일서점x스튜디오490 기억풀 크라우드 펀딩 런칭
- 북파우치 2종, 포토카드-책갈피 3종, 엽서 3종, 스티커 3종, 총 11점

스튜디오490

 hahe120@naver.com  스튜디오490.com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만우기념관3층 인큐베이팅스페이스

 지역 아카이빙, 지역 굿즈 제작, 시각 디자인 및 제품 디자인

공연 기획 및 진행

- 총 6회 온라인 공연 진행
- 12팀의 뮤지션 참여
-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 300회 이상

수상한 협동조합 공간 구축

- 공간 수상한 창고 공간 8월 오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뮤직비디오 1개 제작

수상한 협동조합

 suscoop2020@gmail.com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24길 7, B1 '수상한창고'

 영상 콘텐츠 제작,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 기획

고독스테이

마포구

문화예술

기업소개

고독스테이는 온오프라인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역여행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코로나의 가속화로 독립적 공간과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자아탐구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1인 비대면 공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기와 사회적 연결로부터 잠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의 로컬브랜드 상점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고독스테이

사업목적

- 고독스테이(망원점)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의 로컬브랜드 상점을 연결시켜 새로운 지역 여행 콘텐츠 및 트렌드 창출
- 청년세대들에게 취향, 직무 기반의 가벼운 모임에서 벗어나 혼자서 오롯이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공간/시간을 제공하여 본질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

사업내용

-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청년층, 직장인을 타겟으로 한 디지털 디톡스 복합문화공간 & 지역 연계, 로컬 관광 프로그램
- 트렌드에 소구하는 새로운 감각의 복합문화공간과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라이프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지역 여행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및 브랜딩 개발

- 브랜딩 키트 개발
- 웹사이트 개발 및 제작

홍보 및 자체 콘텐츠 제작

- 영상 2편, 매거진 1권 제작
- 인터뷰 10회 진행
- 광고 5건 집행, 피드 14건 업로드, 팔로워 250명 증가

 0507-1403-3220

 elrme88@gmail.com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45-10

 고독스테이(망원점) 공간 운영, 디지털 디톡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물꼬 은평구 식품

기업소개 ‘물꼬’는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무너진 식사의 기본권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사회적경제 주민모임 ‘두런두런’으로 시작하여 은평구 사회적경제 모임 지원사업 ‘소셜밥터디’를 통해 성장하였고, 모임의 지속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 안에서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협동조합, 도시농부, 도농 직거래를 통해 식재료를 수급하고, 전문 조리사의 컨설팅으로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절대 실망없는 밥상, 기대 이상의 한끼 ‘랜덤밥스’

사업목적

- 사먹는 식사이지만 날마다 집밥처럼 질리지 않고, 맛도 있는 메뉴를 개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을 판매.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밥, 성장하는 밥이 되도록 좋은 식재료를 사용.
- 도시락을 제작하고,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교실 도시락 제공
- 가족단위 밀키트 판매

사업내용

메뉴 3종 개발

- 아이들이 원하는, 균형잡힌, 맛있는 메뉴
- 전문 조리사의 자문으로 메뉴 개발
- 공공급식센터, 로컬푸드, 도농 직거래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범사업 운영 (도시락 제작 및 배송)

- 우리동네키움센터 2곳, 지역아동센터 1곳, 돌봄교실 2곳 등 돌봄기관에 제공



도시락 납품 시범사업 운영

- 지역의 아동돌봄기관 도시락 시제품 500개 납품
- 명함, 전단지, 스티커 제작



신제품 메뉴 개발

- 메뉴 컨설팅 3회차 진행

✉ good_gul@hanmail.net

📍 서울시 은평로 9길 13 1층 새싹점포

✓ 도시락 제조, 납품, 판매

더 세프 송파구 교육

기업소개 ‘더 세프’는 외식업 창업자의 소규모 퍼스널 트레이닝과 송파구의 외식업 활성을 위해 2021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2013년 요리사들의 네트워크 더세프를 창설한 이래로 외식업 관련 네트워크 형성 및 모임 개최, 네트워크 회원간 연계 사업, 외식업 취업 및 창업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이 각자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쿠킹 스튜디오를 갖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협력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충분한 실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명 청년 요식업 프로젝트 ‘맛있는 실험실’

사업목적

- 송파 지역 예비 외식창업자 소규모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 진행
- 무조건적인 창업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예비창업자 실무교육, 멘토링 교육

사업내용

- 이론교육(창업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진행/ 2회)
- 실무교육(기초 요리 실무 수업 및 메뉴 개발 심화 과정 / 6회)



창업자 역량 개발교육

- 총 8인 대상 2회차(4시간) 강의 진행



주방 조리업무역량 강화 교육

- 총 6회차 (12시간) 진행 완료
- 참여자 개인당 3가지 이상 메뉴 개발 완료

✉ rallycp21@gmail.com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동 3층 88-1호

✓ 예비 외식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교육

2021 서울시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부모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아리알찬 협동조합

'아리알찬 협동조합'은 동작구에 위치한 마을기업으로 아리깝고 알찬사람이라는 순우리말 '아리알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2015년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막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에 대한 고민에 출발했습니다. 2017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아리알찬은 당일조리 당일 판매하는 음신과 간식을 판매하는 분식카페 '해피트리'를 열었습니다. 2019년 10월 2호점을 오픈하여 도시락, 케이터링, 대체식, 밀키트 등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지역 주민과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납품/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알찬의 협동조합의 김숙영 대표님을 만나 마을기업에 대한 소개와 올해 사업력 강화 지원을 통해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학부모와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다.

"이윤을 좀 덜 남기더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믿을 만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게 중심철학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기업의 이름이 순우리말인 것 같은데,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면서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알찬 협동조합의 대표 김숙영입니다. 아리알찬은 순우리말로 아름답고 알차다는 뜻인데, 조합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아름답고 알차다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인데, 말 그대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아리알찬 협동조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건가요?

2015년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분들이 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좋은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에 마을기업을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탈락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위키서울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밥상나눔'을 주제로 멤버들과 음식을 매개로 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도전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분식카페 해피트리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 아동센터부터 함께 했던 학부모님들이 현재까지도 주축 멤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마을기업의 구성원으로 함께 활동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시나요?

40대부터 70대까지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함께 하는 분들도 있고, 인테리어나 초기 세팅에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고, 이사회는 매주 수시로 모여서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때부터 함께 했던 초창기 조합원들의 출자로 첫 매장을 열게 되었고,



이후에 시간제 일자리로 결합했다가 새롭게 조합원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 아무래도 단순 요식업이라기보단 마을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중심이 되는 운영 철학이나 미션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나요?

이윤을 좀 덜 남기더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믿을 만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게 중심 철학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목표입니다. 공공성을 생각해야하는 마을기업이면서 동시에 이윤을 내야하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뉴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메뉴가 인기가 많은지, 가격대는 얼마가 적정한지, 조리하는 사람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는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작구 안에서 2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케이터링이나 도시락같은 사업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문을 연 매장은 해피트리라고 분식 메뉴를 추력으로 하고 있는 분식카페입니다. 컵밥이나 떡볶이, 샌드위치같은 메뉴들을 팔고 있습니다. 2호점은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서 2019년 10월에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게 돼서 빠르게 조리장 형태로 전환해서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나 도시락도 만들고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체식이나 밀키트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출장이나 배달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만 포커스를 맞춘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력 강화는 뭘 그대로 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비와 고도화, 사업력 강화같은 다양한 트랙들이 생겨서 기업들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친환경 패키지 컨설팅 사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방식을 특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아셨는데, 다양한 밀키트/대체식도 개발했습니다.

◆ 기존의 마을기업 지정사업(신규, 재지정)과 이번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마을기업 지정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사업비 지원이 메인이고, 당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나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인건비 등 실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력 강화는 말 그대로 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산같은 경우도 이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마을기업에 신청할 때만 해도 신규와 재지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예비와 고도화, 사업력 강화같은 다양한 트랙들이 생겨서 기업들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친환경 패키지 컨설팅 사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방식을 특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처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이번 사업력 강화 지원까지 여러해 동안 마을기업으로 지역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고민이나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마을기업으로 정체성이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을 소개했을 때, 동네에서 자비로 식당을 개업하시는 소상공인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나랏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공공성이나 지역성 같은데서 분명 일반적인 기업이나 식당과는 구분이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재원이 지원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기업이라 했을 때 그 정체성이나 인지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하지만 우선구매대상이나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나 부가세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을기업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에 맞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나 혜택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올 한해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곧 22년이 다가올텐데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비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당장 내년의 목표는 1호점과 2호점의 매장을 합쳐서 큰 매장을 내는 것입니다. 1호점 같은 경우에 분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2호점에선 한식을 기본으로 도시락이나 급식을 납품하면서 평거푸드가 중심인 케이터링 서비스도 겸하고 있다보니 식재료 관리나 인력 배분 등 전반적인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자체 진단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매장을 크게 하나로 통합해서 한식을 주력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시락과 급식도 납품하고, 대체식이나 밀키트 판매하면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

◆ 올 한해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사업력 강화를 통해 진행한 것은 크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이었습니다. 저희가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받아서 퀄리티를 많이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한식이나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역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도 요즘 안할 수가 없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새로 개설하게 되었고, 포토샵도 어느정도 다룰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더 잘 알리고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등록하면서 저희 기업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비대면 판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

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생활교육의 영역까지 돌봄의 영역을 확장하여 종합적인 돌봄이 가능한 지역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합 안에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아리알찬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날짜)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비교적 최근인데 올해 사업력 강화 사업을 통해서 케이터링 전문 교육을 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기울여서 케이터링을 제공했는데,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한 3일은 피드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너무 잘만들었어서 그날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인 것 같습니다.



케이터링 사업 분야 강화 컨설팅

- 케이터링 메뉴 및 디자인 컨설팅 진행 (신규 레시피 20여종 업데이트)
-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업데이트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양식조리사 자격증 및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친환경 포장용기 시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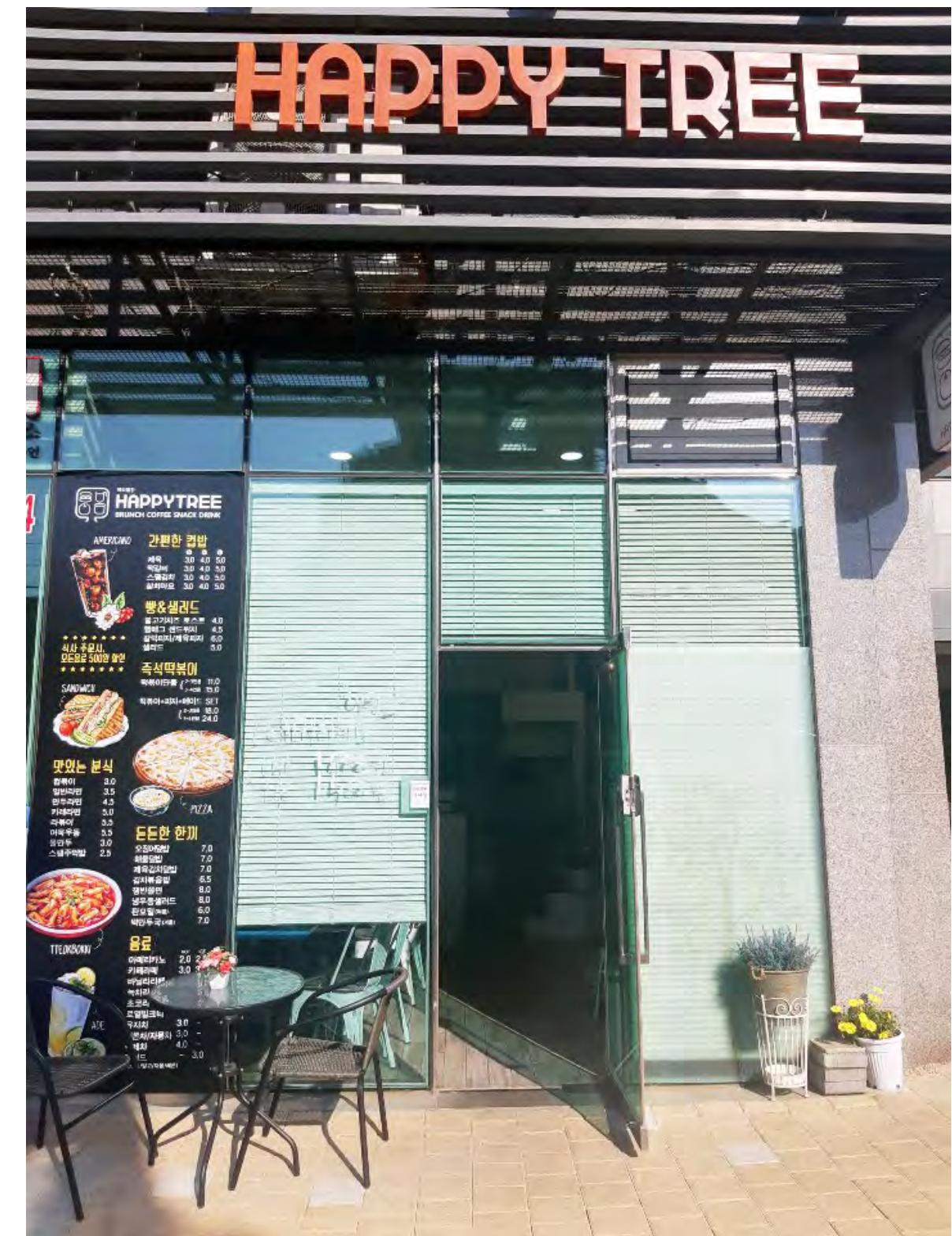
- 포장용기 개선 및 시제품 개발

📞 02-824-0216 📩 foruin@naver.com

🏠 <https://happytree0216.modoo.at/> 📱 happytree0216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1층 101호

✓ 마을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마을잡지 발행, 지역의제 공론장 운영



목화송이 협동조합 도봉구 제조

기업소개 목화송이 협동조합은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바느질제품을 생산하며, 지역장년층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입니다. 2006년 한살림 조합원들이 모인 워커스 콜렉티브 결성을 시작으로 마을기업으로 발전한 목화송이 협동조합은 친환경 면생리대 보급과 판매를 시작으로 장바구니, 에코백, 텀블러, 파우치 등 20여종의 친환경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비전

-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다회용품을 개발(장바구니, 면행주, 면생리대 등)
- 일상 속에서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중저가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
- 지역 중장년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주요사업

- 면생리대 제조 및 환경교육
- 일회용을 줄이는 바느질 제품 생산
- 빨아 쓰는 면생리대, 면마스크, 장바구니, 에코백, 텀블러, 파우치 등 20여가지 상품
- 면세점, 백화점, 생협매장, 아름다운가게등 각종 오프라인 매장과 목화송이 쇼핑몰, 오픈마켓, 아이디어스 등 온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 판매



홈페이지 리뉴얼

- 신제품 업데이트 및 상세 페이지 개선



의류 브랜드 네이밍 및 포장재/브로슈어 개발

- 의류 브랜드 '목화C' 런칭
- 브로슈어 및 박스 포장재 개발



070-

7124-9351



mokhwasonge@naver.com

<https://cottonball.kr/>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26길 20-1



친환경 바느질 제품(면생리대, 장바구니, 면행주등) 제조 및 판매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마포구 식품

기업소개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은 성년기에 접어든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모들과 마을주민들이 2013년 함께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고용과 유기농·공정무역 커피의 대중화를 위해 '좋은날 커피'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비전

-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의 대중화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 지역 사회 편입 및 소통 증대

주요사업

-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 '좋은날 커피' 납품 및 온라인 판매
- 직업 체험 프로그램, 마을 교류 행사, 교육, 자조모임 운영
-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콜드브루 신제품 개발

- 브라질 콜드브루 510개 생산
- 리무버블 스티커와 병 2개입 선물세트 박스 각 1,000개 제작



제품 패키지 디자인 신규 개발

-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미술수업 5회 진행
- 드립백 30개입 선물세트박스 1,000개 제작



02-3144-3756



dutch3757@naver.com

<https://sungmisangoodday.modoo.at/>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80 3층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 납품 및 판매,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 세상

마포구 식품

기업소개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문을 연 마을식당 ‘문턱없는밥집’을 중심으로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된다는 생각으로 친환경-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여 나눔과 비움을 실천하는 점심 ‘소박한 밥상’과 유기농 식사와 회식을 즐길 수 있는 저녁 ‘푸짐한 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비전

- 친환경·유기농 먹거리 사업
-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먹거리 사업
- 취약계층 일자리 증진 사업

주요사업

- “형편껏” 먹거리 나눔사업
- 친환경 먹거리 판매 운영: 저녁(단체예약)
- 친환경 먹거리, 로컬푸드, 슬로푸드 교육사업
- 희망키움샵: 반찬 및 친환경 생태 물품 판매사업
- 발효학교: 전통장류, 장아찌, 발효식품 등
- 서울시 sos돌봄 사업-죽 판매



돌봄서비스 집밥 밀키트 개발

- 밀키트 총 10종 신규 개발



건강한 먹거리 밀키트 나눔 사업

- 밀키트 나눔 10회 진행, 총 90명 참여
- 설문조사 2회 진행

02-324-4190 m.t.ss@hnamail.net

<https://m.cafe.daum.net/bobjibngage>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57, 소행주4호 지하101호 문턱없는밥집

✓ ‘문턱없는밥집’ 운영

북촌공예마을 협동조합

종로구 제조

기업소개 북촌공예마을 협동조합은 종로구 북촌의 마을주민들이 직접 장인이 되어 손수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기 위해 2013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전통공예품, 나전칠기, 도자기, 한복 및 장신구, 금박, 공예체험 키트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예 교육, 공예체험 키트를 활용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비전

- 북촌한옥마을에서 전통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장인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운영
- 공예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주요사업

- 전통공예품(목공예, 한지공예, 금속공예 등), 나전칠기, 도자기, 한복 및 장신구, 금박 제작-판매
- 지역 주민 대상 전통공예 및 전통공예 강사 양성 교육 실시
-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공예 체험키트를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CI 제작

- 공동브랜드(CI) 제작 및 서브아이덴티티 3종 제작완료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CI를 활용한 포장 디자인 3종(명함, 쇼핑백, 상자)개발 완료



키트 매뉴얼 제작

- 키트 매뉴얼 총 6종 개발

02-766-6535 mwisek@naver.com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0, 302호

✓ 전통 공예품 제조 및 판매, 전통공예 체험 및 교육, 전통공예키트 개발

2021 서울시 지역의제 기반 기획사업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는 마을기업



도시마을 협동조합

도시마을 협동조합은 강서구의 지역 주민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4년 창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방역소독 서비스 및 건물 환경위생 관리 외에도 생활환경제품 개발 및 판매, 환경위생 아카데미 운영, HACCP 컨설팅 등의 토탈 환경위생 솔루션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건강한 일상과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지역의제 기반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교육 및 인턴십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느리게 걷는 아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연합회 공동대표이기도 한 노정은 이사장을 만나 도시마을 협동조합의 2021년,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생활환경 마을기업

"지역에서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보자는게 시작이었어요."

◆ 안녕하세요. 도시마을 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마을 협동조합은 강서구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지역에서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보자는 게 시작이었어요. 방역소독 서비스, 해충방제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 환경위생교육,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몇해동안 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마을에게는 또 다른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19년에 비해 20년이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갔어요. 방역서비스 부분 매출은 특히 더 그렇죠. 덕분에 방역 팀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방역팀을 지원해줄 사무직 직원들도 새로 고용했어요. 또 다양한 곳들을 방역하다 보니 장소마다 노하우나 프로세스들이 생겨났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었어요.

◆ 마을기업은 어떤 고민에서 지정을 받게 되었나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공동체성이거나 대단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업비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 하다 보니 공동체성과 연결된 지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지역 안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그 분들과 사업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기업의 미션, 마을기업으로서 지역에서의 역할 등을 고민하게 되었죠. 지금은 그분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으로 도시마을과 함께하고 있어요.



**마을기업의 자생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게 가장 중요**

◆ 방역과 청소 관련해서는 기존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큰 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판로와 고객을 확보하며 성장해왔는지 궁금합니다.

큰 기업의 경우 고객층이 공공보다는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 같은 민간 비율이 높은데, 저희는 공공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복지관 쪽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공공에서 수익을 얻으면 방역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1+1형태로 무료로 소독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사업을 의뢰해주신 곳들도 많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연대하고, 공헌활동들을 하면 나중에 다시 좋은 방향으로 다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 그 과정에서 마을기업이라는 타이틀 혹은 특성이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인증서나 자격증만 있다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순 없어요. 공공에서 영업을 하려면 일단 제품이나 서비스가 매력적이어야 해요. 각종 인증을 갖추고, 필요로 하는 보고서나 서식을 제공하고, A/S를 해주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죠.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은 공공구매에서 우선 대상이기도 한데, 마을기업은 자치 구의 조례에 따라 달라서 그런 부분도 아쉬워요.

◆ 올해 서울시의 대표로 전국 14개 우수 마을기업 중 한곳으로 선정되는데, 소감은 어떠한지?

내심 대상도 기대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나니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마을기업은 우수상을 받은 광주의 ‘플리마코’인데, 코로나 때문에 플리마켓을 열지 못하게 되니까 드라이브-스루 플리마켓을 열었더라고요. 결국 마을기업은 지역 안에서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기업인데 저렇게라도 만남을 모색 했다는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보고 오니까 서울시의 마을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올 한해 지역의제 기반 기획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셨나요?

강서구에는 노인도 많지만 장애인 인구도 서울에서 1,2위를 다투죠. 특히 몇 년 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시끄러웠던 곳이기도 하구요. 2018년에 강서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원사들이 강서구장애인가족부모회, 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인턴쉽”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3곳이 참여했었거든요. 장애인이 일반 회사로 나가기 전에 기업과 사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발달 장애인도 훈련을 하면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2018년,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장애인 일자리’란 의제로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보호 작업장에서 오래 훈련된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도 일을 곧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역 의제로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경제 내 다양한 기업에서도 인턴 활동하게 하는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취업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기관 등 거래처를 발굴하고, 인턴십을 통해 현장 교육도 하고,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눴습니다.



**마을기업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돌아본
마을기업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 서울시 마을기업 연합회 대표님이기도 한데, 올 한해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있다면?

서울시 마을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하며 많은 기업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많았어요. 먼저 시니어로 구성되어있는 마을기업들이 많은데, 실무를 담당할 분이 없어서 구청이나 지원조직에서 많은 업무를 대신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이니까 부족해도 괜찮다거나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을기업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데, 전문성이나 퀄리티가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더라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마을협동조합도 고민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나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마을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지역 활동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차원에서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을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기업과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이윤을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라도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을기업 안에서는 돈을 못벌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행안부에서는 차차 마을기업 개수를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탄탄한 마을기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정 기업수를 줄이거나 심사를 더 타이트하게 봐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예산이 결정되어 버리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도 고민일 거에요. 또 마을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심사때는 공동체성이나 지역성을 높게 보고, 어떤 심사때는 기업성을 높게 보는 식이라 기업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또 기준에 같은 사업을 업체가 있는데 마을기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역차별이 아니냐는 심사위원분도 있었어요. 마을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면?

일단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제정될 필요가 있어요. 정권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계속 바뀌는 것은 장기적인 기업의 운영 차원에서 좋지 않아요. 또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기업 연합회 활동이나 마을기업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담당자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올 한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짜를 하루 꼽는다면 언제인가요?

올해는 아무래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상을 받았던 날이 가장 인상에 깊어요. 그동안 열심히 잘해왔다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한 직원과 조합원 분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장애인 일자리 활동

- 1인 고용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 취업희망 장애인 모집 중



근로지원인 및 장애인 일자리 업무매뉴얼 제작

- 매뉴얼 1식 개발

📞 02-6347-0401 📩 ctcoop@naver.com 🏠 ctcoop.kr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316호

✓ 방역소독 서비스 및 건물 환경위생 관리, 생활환경제품 개발 및 판매, 환경위생 아카데미 운영, HACCP 컨설팅 등의 토탈 환경위생 솔루션

더 작게, 더 가까이 주민들의 건강돌봄을
실천하는 동네병원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마포구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운영하는 민주적 의료기관입니다.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을기업입니다. 2012년 창립하여 2013년 생협의원이 문을 열었고, 지역 주치의가 사전에 건강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예방의학 서비스와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교육, 소모임, 공공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역 의제 기반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임상희 사무국장과 함께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소개와 마을돌봄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웃의 건강을 돌보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위해 주민들이 함께 병원을 설립하다

◆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2년에 창립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해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이고 처음에는 소비자 협동조합이었다가 의료의 공공성이나 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이 미션이다보니 14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2010년에 300명 정도의 출자로 출발해서 현재는 1500세대가 조합원이 되어 함께 하고 있어요, 조합원과 이웃의 건강을 돌보고, 지역의 취약계층 건강문제와 의료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료협동조합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텐데, 일반 병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 수 있을까요?

환자들이 느끼는 차이는 우선 믿을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병원의 존재 이유는 많은 병원들이 사익 추구나 경쟁구도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외국에는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선 동네에서 다 같이 경쟁하다보니 구조적으로 병원들은 과잉 진료를, 환자들은 의료쇼핑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병원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죠.

또 저희는 건강의 주인공은 당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이나 검사로 건강해지기보다는



**"건강은 다양한 관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좋아진다고 믿거든요"**

생활습관의 개선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한 교육이나 다양성 인권강좌, 소모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 의료 협동조합을 시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선생님 모셔오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저희도 의사선생님을 모셔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009년에 주민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의료인이 처음부터 결합하는 모델은 아니어서 처음 선생님을 만난 게 2013년도였고 병원을 만드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저희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도 하시고, 서울시북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계시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 모든 병원들이 초창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의료협동조합의 경우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까지 왔나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이나 간호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약품, 임대료 등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출자금만으로 감당하기에 큰 비용이고, 개원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합원들도 많이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모셔왔을 때 병원을 바로 차리는 큰 모험을 했죠. 굉장한 모험으로 저지른 일이죠. 의료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1,000명은 되어 병원이 큰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는데, 저희 조합원이 당시에 600명이 안됐어요. 그러다보니 초기에 적자 폭이 커죠. 개인병원이면 벌써 문닫았을텐데,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과 지역의 도움으로 일년씩 버티고 자라서 이제야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 무지개 의원에선 어떤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처음 아플 때 오는 곳이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모든 진료를 다 봐요. 예방을 하기 위한 건강검진도 하고, 방문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아 청소년과 40~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전형적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20~30대 청년들도 많아졌어요. 청년층 진료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성소수자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위해 많이 오세요. 이런 치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없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일상적이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 진료 외에도 다양한 소모임이나 강의, 연대활동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 진료 말고도 마포에 사는 1인 중장년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더 이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복지는 많은데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의료 지원은 잘 없거든요. 고립된 관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마포구청에서 대상자로 선정하면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사회복지와 정서 지지관계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또 다양성 인권강좌를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강이 다양한 관계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연결될수록 좋아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자의 삶 혹은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함께 짚어보는 강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등산, 댄스 등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네요.

◆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건가요?

우선은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은 그 중 한 분만 가입하셔도 가족 조합원으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5만원의 기본 출자금을 내면 가입이 이뤄지고 정기 후원제도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나 접종 및 비급여 항목들을 10%이상 혜택 보실 수 있고, 조합원이 되면 병원의 운영이나 수가 결정에도 참여 수 있습니다. 또 강좌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결하는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 프로젝트'

"지역 안에 돌봄체계가 더 연결되고
많이 촘촘해져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맞이하는 죽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을 한해 지역의제 기획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중심 건강 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마을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현장이나 지역에서 관계망이 촘촘하게 엮여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권 내에서 지역자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보자고 했어요.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 동네, 혹은 마포구의 더 많은 지역 자원을 지역의 돌봄 의료 풀을 모아내는 프로젝트 였습니다. 또 그 안에는 공공이나 민간의 활동가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 교육도 수행했습니다.

◆ 기존 사업들도 그렇고 이번 지역의제 기획사업도 지역 내 중장년 세대에 더 추첨을 맞추는 이유가 있을까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복지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아플 위험이 높은 중장년에 대한 서비스나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거든요. 공공도 지원의 대상을 단순히 소득이나 나이로만 따져서 어르신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위가 좀 더 넓어졌으면 합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나 공백을 더 많이 발견하고 대상을 넓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어요.

◆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과나 가능성을 발견한 게 있나요?

사회복지사와 요양기관의 파견 활동가를 이분들을 케어매니저라 부르고 함께 통합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일상 편의를 위해 요양은 어떻게 하고, 진료 및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주민봉사는 어떻게 연계시키고, 그런 촘촘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어떤 연합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눴어요. 그렇게 계속 회의를 하다보니 유기적인 연결과 기획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지역 안에 돌봄체계가 더 연결되고 많이 촘촘해져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맞이하는 죽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의제 기반 기획사업인데,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평가나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기간이 짧아요. 저희는 이미 몇해동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고민해온 과정이 있고 관계망이 있어서 이번 기획 사업이 가능했는데, 3개월이란 기간은 사전작업 없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만큼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 이번 지역의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돌봄'이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더 작게, 지역과 밀착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료소 하나에 의사, 간호사, 복지사 한 명씩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쿠바의 모델인데, 이런 건강 거점이 주민에게 밀착해서 존재하는거죠. 내년에 마포구와 이야기 중인 모델이 있는데, 아현동에 '케어안심주택'이라고 질환이나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세대 통합형으로 스무 가구 이상 들어오는 모델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하나의 건강 거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꿈을 꾸고 있죠.

◇ 올 한해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요?

저희 병원에 5년 동안 일주일에 1~3번은 오시는 어르신 조합원이 계셨어요. 이분은 암 투병을 하셨는데, 투병하시는 것 치고는 건강했죠. 5년간 관계를 떠나니 직원들 모두와 친했어요. 암 투병 오래하신 분들이 혈관잡기가 힘든데 저희 선생님들 주사 잘 놓는다고 칭찬도 하셨거든요. 저희가 3년 전에 병원 이름을 바꾸는 공모를 한다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 병원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 와중에도 아드님께 우리병원 선생님들을 쟁겨주라고 하셨대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잘 들여다보고 가시는 날까지 보내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동네겠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종합 돌봄돌봄체계 기반 마련

- 역사회 자원연계 자문회의 10건
- 합돌봄 사례회의 6회, 13명 사례관리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케어매니저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1회, 8명 참여
- 돌봄네트워크 대상 지역돌봄포럼 1회, 21명 참여
- 지역주민 대상 돌봄역량강화 마음건강교육 4회, 20명 참여
- 돌봄단체 임원 대상 비전회의 1회, 10명 참여
- 달력 제작, 5개 단체, 500부 배포
- 핫팩 제작, 12개 단체, 1000개 배포
- 맞춤형 의약품 구성, 6개 단체, 248명 배포

📞 02-326-0611 📩 mapomedcoop@naver.com 🏠 mapomedcoop.net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0, 7층

✓ 무지개의원(가정의학과) 진료, 무지개학교, 건강소모임, 더이음 프로젝트

다사리 협동조합

용산구 교육

기업소개

다사리협동조합은 도심 속에서 전통장을 만들며 사람들을 모으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전통장을 제조·연구하며 아이들에게 전통장을 기본으로 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며, 입시 위주의 경쟁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동체 역량과 심미적 감성, 예술역량, 의사소통역량을 중요시하는 미래교육을 펼치는 협력종합예술 마을학교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I FUTURE, AFTER SCHOOL

성과목표

- 방과 후 안전한 마을형 돌봄교육 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감수성을 높이고 공감과 배려의 체득하여 공동체성을 향상
- 건강 돌봄 : 안전한 먹거리 제공(저녁식사)을 통해 건강 돌봄 추구
- 마을형 돌봄 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 협업체 구축

사업내용

- 방과 후 안전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육생태계 조성
-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 자녀, 한 부모 자녀 등 집중 지원
- 용산구 내 돌봄분야 사회적 기업의 협업체 구축



이주 가정 아동심리상담 등을 통한 돌봄지원

- 수강생 14명 참여
- 야간돌봄 1개반, 주간 연극놀이 4개반 확대 운영



사회적경제 교육기업 분야별 협력지원

- 교육 협동조합 온지곤지와 협업체업 진행
- 청소년 대상 해방촌 마을탐방 프로그램 구성



돌봄프로그램 연계

- 용산교육복지센터 및 용산구내 7개 키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02-792-3020 hy2580@hanmail.net dasari0223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19번지 2층



문화예술교육사업, 마을형 농산물직거래사업, 마을식당 및 전통장체험학습

에듀통 협동조합

온평구 교육

기업소개

에듀통 협동조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과정을 만난 구성원들이 지역내 취약계층 아이들의 수학교육을 돋기 위해 2018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교육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진 에듀통 협동조합은 교육사업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무료수업, 아동센터 교구 제공, 지역 네트워킹 지역사회공헌 활동 또한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온평구 놀이돌봄 플랫폼 개발

성과목표

-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의 교육 분과에 5개 협동조합이 모여 2020년 아래로 돌봄 바우처 운영
-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접수 및 결재까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 추진

사업내용

온평구 놀이돌봄 플랫폼 개발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이자 개발사와 협업하여 플랫폼 개발
- 신청 접수, 결재 등 일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온/오프라인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2개월)

- 구축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
- 월별(오프라인 놀이돌봄 3회, 온라인 놀이돌봄 1회) 방식으로 놀이서비스 제공 (주1회, 회당 2시간)
-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한 향후 서비스 보완점 확인 & 업그레이드



02-389-3128 edu_tong@naver.com



https://blog.naver.com/edu_tong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32, 3층 301호



창의 지도사 양성 과정, 방과후 수업 출강, 창의 체험학습, 자유 학년제 수업, 수학 캠프, 업사이클링 교구 및 보드게임 만들기

나무와 열매 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 돌봄

기업소개

나무와 열매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마을기업입니다. 마을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돌봄 센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일시, 상시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아동들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청소년의 여가욕구 충족과 이용자 부모님들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돌봄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방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습과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성북구 장애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과후활동 활성화 사업

성과목표

- 성북구 내 방과후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뇌병변장애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을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네트워크 형성 및 안내책자 제작을 통한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

사업내용

- 뇌병변장애아동청소년의 마을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
- 성북구 장애인이용시설 네트워크 안내책자 제작사업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마을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 수요조사 모니터링 완료
- 감각심리운동(13회기), 심리음악(20회기), MSGE(20회기)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진행, 총 132명 출석
- 뇌병변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 개방, 무료 돌봄 총 19명 참여
- 무장애 지대 체험 무장애여행 3회기 실시



성북구 장애인 이용시설 네트워크 안내책자 제작사업

- 안내책자 1식 제작 및 350부 배포 완료
- 문턱없는 상점 만들기 캠페인을 통한 총 5개소 경사로 설치 및 '문턱 없는 마을상점'현판 스티커 부착

02-909-4122

namu4122@naver.com

www.namuwayleme.kr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환승주차빌딩 7층

장애인·비장애인 아동 대상 찾아오는 돌봄서비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중구마방 협동조합

중구 돌봄

기업소개

중구마방 협동조합은 중구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주택유지보수, 마을식당/먹거리, 관광콘텐츠사업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창립한 마을기업입니다.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에서 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을 마방뱅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마을의 빈집과 빈방을 활용하여 숙박 및 유지보수 사업, 마을공유부엌 운영,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고령화, 주택 노후화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을지로 마을창작소 중심 허브공간 구축 및 지역주민과 청년예술가 커뮤니티 활성화

성과목표

- 마을 창작소를 거점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예술커뮤니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 체험 키트 개발 및 활용 / 전문가 양성 /수익모델의 제고
- 지역 커뮤니티(마을주민, 소상공인, 예술가의 결합)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사업내용

- 을지로 마을 창작소 중심 지역주민, 소상공인, 전업작가의 허브공간 구축
- 지역주민과 청년예술가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주민, 소상공인, 지역예술가 허브공간 구축 및 콘텐츠 발굴

- 3개그룹 FGI 및 설문조사 완료
- 대담 프로그램 1회 진행
- 체험키트 3식 개발
- 체험키트 프로그램 8회 진행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 등 주체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체 네트워크 사업구축

- 네트워크 회의 8회
- 공동체 활동 지원 10회
- 사회적 경제인식 홍보 굿즈 및 동영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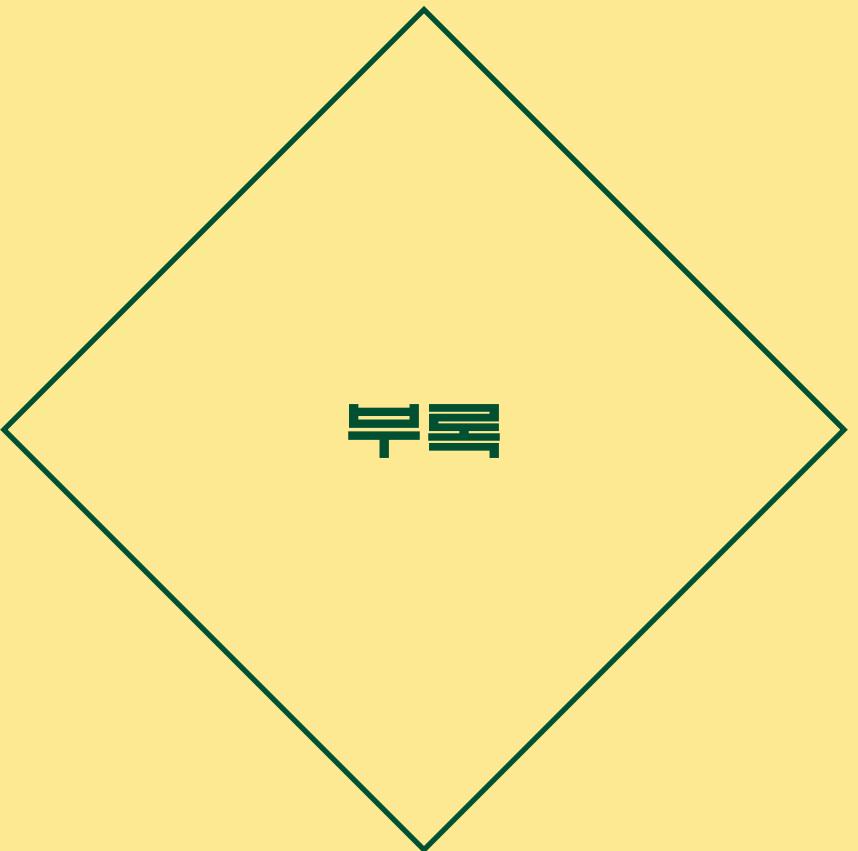
070-8670-0039

cmj6364@naver.com

<https://jmabang.co.kr/>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 2층

- ✓ 마을의 빈방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조직](#)
- [자치구 지원조직 리스트 및 안내](#)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안내](#)
-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간 안내](#)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리스트

자치구	센터명	연락처	주소
강남구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02-6956-2021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공단서울남부지역본부) 3층
강동구	강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02-482-136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47 소셜타운 1층
강북구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02-994-8283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 서울캠퍼스 만우71년관앞층7307호
강서구	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2600-6506	서울시 강서구양천로57길10-10 3층 (가양동탐라영재관)
관악구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6713-7500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0 관악사회적경제허브 2층
광진구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461-9390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
구로구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3666-9845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4-28 오류문화센터 4층
금천구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32-3792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8길 23 금천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3층
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33-715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봉구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6952-6954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동대문구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69-9936	서울시 동대문구 담신리로 38길 19, A동 2층
동작구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820-9008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40, 2층 동작구사회적경지원센터
마포구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303-5284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1,2층
서대문구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02-3140-8026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3층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서초구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582-8868	서울시 서초구 사령대로 2길 10 지하2호
성동구	성동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2291-2323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8층
성북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27-950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3층
송파구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43-1421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246 (마천동, 송파소방서 앞)
양천구	양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2643-1556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1층
영등포구	영등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5029-4969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영등포사회적경제지원센터2층
용산구	용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318-5200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애비뉴 B106
은평구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02-355-7913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종로구	종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739-700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길 12
중구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670-0039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97 2층
중랑구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94-2233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중화동)

서울시 자치구별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38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9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3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084-545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2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6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2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2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2127-4489	중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2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4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4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시는 길

대중교통 안내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3호선,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도보 7분

버스로 오시는 경우

불광역, 불광1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하차

마을은평 05

간선471, 701, 703, 704, 705, 706, 720

지선7022, 7211, 7212, 7720

광역9703, 9709

일반99,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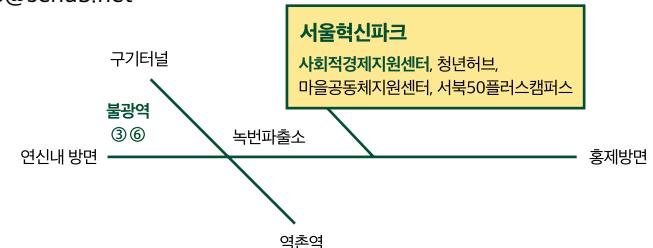
직행9710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대표전화/팩스 02-353-3553

대표메일 info@sehub.net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센터 공간 안내

안내

센터는 서울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센터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대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및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사를 우선 대관합니다.

대관대상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을 하는 주체
- 서울시 및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지원센터 수탁사무 관련 행사
-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을 진행하는 조직 및 주체

대관시간

평일 09:00 ~ 20:00,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습니다.

문의

02-2088-6087 / space@sehub.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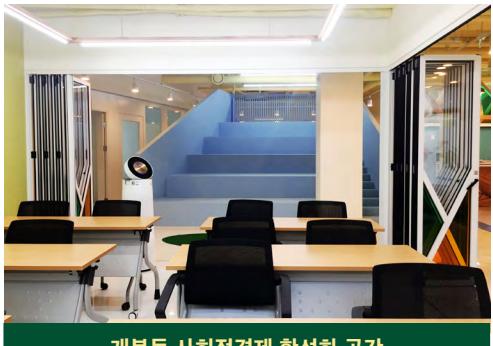


협동허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미래청 1층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공간 기반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마련하고 협동허브를 방문하는 시민 모두에게 사회적경제 정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용도 : 사경단체, 정책사업 조직 사무 공간
- 대상 : 사회적경제 부문별/업종별/지역협의체 및 정책 사업 준비 조직
- 시설 : 교육장, 세미나실, 공용 주방, 사무실 등



개봉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53-19번지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룸과 전자칠판을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협업공간입니다.

- 용도 : 비대면 서비스
- 대상 : 비대면 사업 신규 기획 or 사업전환 계획 중인 기업
- 시설 : 스튜디오룸, 작업실, 회의실, 교육장, 사무실 등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지 청과동 3층

가락 먹거리 클러스터는 먹거리, 친환경, 보건, 위생 분야의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소셜 클러스터 공간입니다. 50인 규모의 대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칠판을 통한 강의가 가능한 소강의실 및 화상 회의실, 예비창업가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를 보유한 협업 공간입니다.

- 용도 : 먹거리 관련 비즈니스
- 대상 : 먹거리 관련 사업 기획/전환 조직
- 시설 : 코워킹 공간, 회의실, 교육장, 사무실 등



상암 소셜박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번지 마포문화 비축기지 내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 기반의 실험적 활동 추진을 위한 공간으로 마포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을 도모하고 또한 문화 비축기지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 시민 참여형 공간입니다.

- 용도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적 활동
- 대상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추진 조직
- 시설 : 교육장, 세미나실, 공용주방, 사무실 등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시행지침

2022년도 마을기업 지정-지원체계



공모 및 접수과정

- 마을기업 모집 공고 : 시·도
 » 시·도는 등 시행지침과 사업 추진일정을 토대로 공고문을 게재
- 신청 접수 : 시·군·구

구분	신청서류	
기본 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회차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⑤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 규제확인서 등) ⑥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적격검토

- 시·군·구는 시·도 지원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적격검토
- 적격검토 후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시·도에 추천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외 대상 단체 등 적격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시도에 추천 불가
 - » 부적격 기업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

지정 요건 등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우선순위 부여(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
- 심사 후, 추천명단(우선순위 기재)과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행정안전부에 추천 불가
 - » 탈락 기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하여 시·군·구에 통보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 시·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지자체, 마을기업 지원기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 지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약정을 체결

-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수 : (상) 20인 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지원 활용 여부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여부 및 수의사업 여부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p> <p>※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을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p> <p>※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히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리의 충실히(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을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히(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p>※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p> <p>※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p>		

각 기관별 역할

- 법령 제·개정,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취소
- 마을기업 자립 기반 조성, 성장지원,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시·도

- 마을기업 모집공고, 시·도 심사 및 추천
-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취소
- 소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관리
-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관리

시·군·구

- 마을기업 지정신청 접수 및 현장실사, 적격 여부 검토, 약정체결 등
- 소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관리
-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 보조금 교부 관리, 실적보고서 접수·검토 등

마을기업 지원기관

- 마을기업 발굴 및 심사 지원
- 판로 확대, 유관 정책사업 안내 등 지원
-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지자체의 마을기업 육성·관리 업무 지원(실태조사, 현장점검 지원 등)
-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지원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한해살이 공유집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행일 2021년 12월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팍크 미래청 1층

전화 02-353-3553

팩스 02-38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www.sehub.net

편집 협동조합 성북신나

디자인 소곳소곳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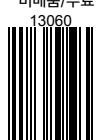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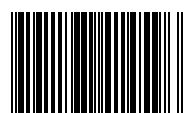


Community Business

길여하는 마을기업, 가치있는 지역사랑

비매품/무료

13060



9 791197 414596

ISBN 979-11-974145-9-6